

“北도발땐 정권생존도 문제될것”

한민구 국방장관 본보 특별회견

인터뷰 : 김은구 대한언론인회장 박기병 6·25참전언론인회장

한민구 국방부장은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도발원점’은 물론 ‘지휘·지원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 도발과 위협으로는 어떤 대가도 얻을 수 없고 북한 정권의 생존까지 영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9월 25일 오후 대한언론인회(회장 김은구)와 산하 6·25참전언론인회(회장 박기병)와 제67회 국군의 날을 맞아 가진 특별 단독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북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현실적 해법 ▲우리군의 혁신 방안 ▲방위산업비리 척결 대책 ▲한미동맹 및 주변국과의 국방협력 문제 등 국방 안보에 관한 입장과 처방을 제시했다.

한 장관은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문제와 관련, 지난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동의 없이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내 가혹행위와 성범죄 근절 등은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진력하고 있으며 신세대 장병들의 교육방법을 개선,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리더십 및 지휘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최근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 정보공개 확대, 사업관리체계 개선, 견제 및 감시시스템 보강, 비리발생시 처벌강화 등 혁신방안을 단기와 중기과제로 나눠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언론인회의 2015년 주제인 ‘나라바로세우기’ 캠페인에서 국방 안보의 문제는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과제로 여겨지고 있는데 한 장관의 이번 인터뷰는 이런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인터뷰는 9월 25일 오후4시 국방부장관 접견실에서 김은구 대한언론인회 회장과 박기병 6·25참전언론인회장이 질문자로 나섰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배석했다.

- 최근에 DMZ의 지뢰, 포격 등 도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생각지 못한 서해 NLL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도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軍은 향후 적의 도발시 도발원점뿐



한민구 국방장관(가운데)이 김은구 본회회장(오른쪽), 박기병 6·25참전 언론인회장(왼쪽)과 특별회견을 하고 있다. <이철영 본보편집위원>

北비대칭전력 무력화 첨단기술 개발노력

아니라 지휘 지원 세력까지 타격하겠다는 대북 경고를 해왔는데 단호히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북한군은 서해 접적해역 일대에 포병 화력 및 함정을 증강하고, 전투시설을 보강하는 등 도발 준비 활동을 지속하

고 있습니다.

만약, 北이 도발을 한다면 ‘도발원점’은 물론 ‘지휘·지원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하여 敵이 그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과 위협으로는

어떤 대가도 얻을 수 없고, 북한 정권의 생존까지 영향이 있다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킬 것입니다.

- 북한 김정은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대남 대화를 제의하는 등 혼란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 군부 동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정은은 외견상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공포정치, 경제난 심화, 외부사조 유입 등 체제 불안정 촉진 요인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당·정·군 간부 대상 수시 강등·복권, 숙청으로 신변 불안감 증대

▲ 관료에 의한 부패구조 고착화 및 식량·전력난 등 경제난 지속

▲ 私경제 확산으로 외부사조 유입, 배금주의 팽배 등 주민의식 변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현영철 숙청 이후 ‘김정은 지시 무조건 관철’을 위한 군부의 충성경쟁이 심화되어 북한군의 동향을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 핵과 잠수함, 생화학 무기 등 北의 가공할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려면 엄청난 국방예산이 소요되고, 시간도 오래 걸릴 텐데 역비대칭 전력 개발 등 현실적인 해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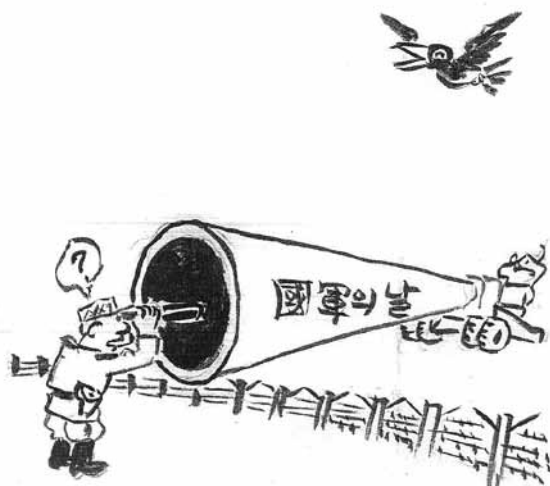
북한의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위협 등 비대칭전력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입니다.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 전략의 이행체제를 발전시켜 효과적 억제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의 확장억제 방법과 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의 독자적 대응능력도 지속 증강해서 필요시 선제타격이 가능토록 Kill Chain을 구축하고 적 미사일 요격을 위한 KAMD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개발 및 민군기술 협력을 통해 정밀유도 무기, 에너지무기 등 적의 비대칭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역비대칭전력 개발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고바우 만평

김성환 (본회 회우)



남조선은 캄캄한 데구먼

2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동의 없인 日자위대 진입못해”

한민구 국방장관 본보 특별회견

1면에서 이어집니다.

- 군이 한미동맹만 믿고 자주국방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연기도 그런 맥락에서 보는 층도 있습니다.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자주국방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 수준을 넘어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중입니다.

한미 양국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합의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현실화,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 등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김정은 정권의 오판에 의한 도발을 막고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 전작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자강(自強) 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국방을 통해 군사력 운용 개념을 혁신하고, 첨단 군사력 건설을 통해 미래 5차원 전쟁에 대비하는 이유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체제를 바탕으로 당면한 북한의 위협 및 도발을 억제 및 격퇴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적 도전요인으로부터 국가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동북아에서 중국, 일본의 군사력 증강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동북아 역학구도 변화 속에서 우리 군은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군사력의 기본 역할은 국익 보호와 국익 증진입니다.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리한 전략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한미 군사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키고, 이를 기본축으로 주변국과 동반자관계 발전을 위해 군사적 투명성 제고,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국방협력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역내 다자안보협력 증진 및 지역안보 문제 해결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역내 불안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동북아 평화협력 안보질서를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지난 9월 11일에는 한국·호주 2+2회담에도 다녀오셨고 10월에는 한·미 국방장관회담도 있지요?

지난 9월 11일 한국·호주 외무장관·국방장관 2+2 회담에 다녀왔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양국의 안보·국방협력 청사진을 채택했습니다. 이 청사진은 외교·국방당국 간 협력은 물론 경찰 사이버 국경안보 위기관리 해양안전 등 분야의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위한 구체적 방안입니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 미사일과 관련하여 유엔안보리 결의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8월 25일에



국방현안 전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한민구 국방장관.

신세대 장병 자긍심 고취 지휘역량강화 신병교육 인권존중하며 강한 훈련 실시



김은구 대한언론인회 회장.

이뤄진 남북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호주 케빈 앤드류스 국방장관과 한·호주 군사교육 교류에 관한 이행 약정을 체결해서 체계적인 군사교류협력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관련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부근 활동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유사시 자위대의 우리 영공과 영해에 진출하는 문제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군사 활동은 우리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우리 입장을 일측에 지속 전달해오고 있으며, 지난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일본 방위대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동의 없이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진입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군내 가혹행위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여러 차례 단호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여전히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와 국회



박기병 6·25 참전 언론인회 회장.

특위로부터 의견을 수렴, 국방부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일부 시행 중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 지난 북 도발 당시, “전우들과 함께 싸우겠다”며 전역을 연기한 병사들의 결의에 찬 모습이 국민에 감동을 줬고 국민 안보의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신세대 젊은 장병들을 위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신세대 장병들은 자유분방하고 일견 연약하게 보이지만 명확한 목표와 방향만 제시되면 자긍심을 갖고 스스로 해내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신세대 간부들에 대해서는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리더십 및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에서 군대윤리, 인성교육, 군법 및 인권 등 12개 과목을 통합하여 리더십 집중교육을 실시 중에 있고 사건·사례 위주 토의식 교육으로 야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개선했습니다.

- 병영생활에서 인권만을 외쳐대서야 군

의 생명인 군기가 잡히고 전투력 높은 강병으로 조련되겠습니까. 강군 육성을 위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신병 교육방식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 자신이 배운 내용을 동료에게 설명하고 이를 행동으로 숙달토록 생각하는 전투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야전부대에서도 평가계획을 1개월 전에 공지, 준비시간을 부여하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숙달하기 위한 여건을 보장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생각과 범규 준수 및 복종을 행동화함으로써 군 기강 확립과 인권존중을 동시에 실천하게 합니다. 강군 육성을 위해 부대단위 전술 훈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술훈련 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해 취약점 식별 및 보완, 마일즈 장비, 시뮬레이터 등 과학화된 장비를 활용, 적이 있는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해서 군 기강 확립과 인권존중, 강한 훈련과 휴식의 조화를 통해 정예화된 선전강군으로 육성됩니다.

- 군 복무자에 대해 취업시 가산점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 가산점제 재도입”은 국가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가산점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군 가산점에 의한 합격자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어서 (* 가산점 : 3~5% → 2%로 하향 / 합격자 상한선 ‘20% 이내’로 신설)

‘99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위헌성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아일보사의 영예로운 제복상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신 바 있으십니다. 제복입은 군인이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이유는 위국 헌신 군인본분을 평생 몸으로 실천하고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적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필사즉생의 각오·용기를 가지고 전장에서 승리하였으며 부모, 자식, 부하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인간적인 따뜻함을 가진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병들도 이분들을 사표로 삼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이라는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높은 도덕적 용기와 명예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식하고 실천할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관 자신부터 솔선수범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근 군 대장급 고위 지휘관의 대폭인사를 했습니다.

3면으로 이어집니다.

국방능력 무기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최근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 사태 때 우리 군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격려와 칭찬을 받았다. 수색대 장병들이 예상치 못한 지뢰폭발에도 신속하고 의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화성기 방송을 재개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냈다. 포격도발 때에도 1973년 이후 처음으로 DMZ 내에서 포격전을 벌이면서 적절한 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은 전면전을 위협하면서 이례적으로 잠수함정의 70%를 움직이고 최전방 지역에서 대규모 포격전을 감행할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동안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등 북한의 도발 때 실망스런 대응을 하고 각종 사건·사고로 국민의 질타를 받아온 군이 참으로 오랜만에 국민의 성원과 칭찬을 받은 듯하다. 특히 전역을 앞둔 장병 90여명이 자진해서 전역을 연기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감동을 줬다. 최근의 사태는 그동안 우리 군의 대비태세 등을 우려해온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헬기·장갑차 빼고는 모두 北에 열세

그러면 군사력을 포함한 우리의 국방능력은 과연 크게 신뢰할 만한 수준인가? 필자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거나 자만해서도 안된다고 본다. 우리 국방능력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것과 중국·일본 등 대주변국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일본의 군비증강 위협이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가안보의 제1위협은 북한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크게 재래식 군사력과 비대칭 전력에 있다. 재래식 군사력은 병력, 전차, 전투기, 함정 등 전면전에 대비한 통상적인 군사적 능력을 의미한다. 비대칭 전력은 핵,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장사정포, 특수부대, 사이버전, 잠수함정 등 북한이 우리에게 비해 절대적 또는 상당한 우위에 있는 분야를 말한다.

재래식 군사력은 양적인 면에선 우리가 북한에 비해 상당한 열세에 있다. 남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비교해 보면 병력은 63만명 대 120만명, 전차는 2,400여대 대 4,300여대, 다연장로켓(방사포)은 200여문 대 5,500여문, 전투함정은 110여척 대 430여척, 전투기는 400여대 대 820여대다. 헬기(690여대 대 300여대)와 장갑차(2,700여대 대 2,500여대) 정도만이 우리가 우위에 있다. 군 당국은 이를 근거로 아직도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면에서 공군을 제외하곤 북한에 비해 열세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기고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군사전문 기자

재래식 군사력

북한보다 열세

해공군력은 우세

비대칭 전력 뒷북대응

軍 수뇌부 등

의식전환 필요

하지만 질적인 수준을 감안하면 적어도 해·공군은 북한에 비해 상당한 우위에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해군 함정의 경우 북한군에는 1,500톤급 이상의 함정이 3척밖에 없지만 우리 해군에는 최신에 이지스함 3척을 비롯, 3,000톤급 이상의 함정이 12척이나 있다. 육군의 경우 병력규모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반도 전장 특성상 북한에 비해 열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 강화는 1980년부터 남북 경제력 격차가 커짐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적극 추진돼왔고 북한 입장에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 부각될 때마다 대응책 마련에 급급해왔다.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 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 구축에는 2020년대 중반까지 줄잡아 20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갈 전망이다.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이 부각되면서 북한 잠수함을 잡는 대잠수함 전력보강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이 또한 엄청난 돈이 드는 일이다. 북한의 잇단 비대칭 위협에 ‘뒷북 대응’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끌려만 다니는 듯한 형국이다.

‘참수작전’ 등 한국형 전략·무기개발 나서야

이에 따라 이제는 우리 군도 북한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북한의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한국형 비대칭 전략 수립과 무기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한 세미나에서 공개한 ‘참수작전’ 전략이 그런 예다. 북한의 도발을 제대로 억제할 수 있는 핵심 표적은 김정은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확도가 높은 탄도·순항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전단·화성기 등 대북 심리전 무기 등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비대칭 무기’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의식의 문제다. 아무리 무기체계가 뛰어나도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에 문제가 있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우리 군의 토대인 초급간부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무슨 일만 생기면 미 항공모함과 B-52·B-2 폭격기가

날아오기만을 바라는 듯한 군 수뇌부의 의식도 문제다. 전작권(전시 작전통제권)이 재연기됨에 따라 우리 군 수뇌부의 미국 의존 의식이 가까운 시일내 바뀌기는 어렵게 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함께 통일 이후 중국·일본 등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생존 대전략과 군사력 건설방향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민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

2면에서 이어집니다.

장관 취임 이후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고위급 지휘관의 리더십 혁신방안’을 주장해 왔는데 이번 인사가 소신에 부합합니까?

금번 인사는 군 통수권자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통수지침을 구현할 수 있는 혁신성·전문성·리더십과 우리 국가안보와 군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능력·품성·지휘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직책별 최적임자를 엄선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군 수뇌 리더십의 안정적 역할 보장과 선순환적 인재등용을 통해 우리군의 대비태세 및 전투력 향상을 가속화하고, 강건한 기풍 및 복무의욕·사기를 진작하여 군심결집과 군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군이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방위사업비리 수사를 지켜보며 실망한 국민이 많습니다. 군의 무기조달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고, 부패도 구조적인 것 같습니다. 예비역은 물론 현역 장교들까지 무더기로 비리에 연루됐는데 고질적인 부패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척결할 수 있을지?

방위사업 비리와 부실 원인은 사업관리의 문제, 업무 전문성 부족, 사업정보 미공개, 견제·감시체계 미흡 등으로 진단됩니다.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 ▲ 최저가 낙찰 구조, 책임성 부족, 무리한 사업추진, 국외구매무기 성능 검증 미흡 (사업관리)
- ▲ 잦은 보직변경, 고위직 사업경험 부족, 폐쇄형 인사관리, 현역·공무원 인력관리 불균형 (전문성)
- ▲ 정보독점, 해당군 위주 사업관리 전담 (사업정보)
- ▲ 전관예우, 감시기관 비리 인지율 저조, 미온적 처벌, 원가자료 확인 제한(견제·감시) 등으로 나타납니다.

국방부는 정보공개 확대, 사업관리 체계 개선, 견제 및 감시시스템 보강, 비리 발생시 처벌 강화 등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 단기과제와 중기과제로 구분하여 시행 중입니다.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한 심층 진단, 합동 수사·특별감사 결과를 반영, 구조 및 운영 분야에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 방위사업 비리를 뿌리 뽑겠습니다.

- 사관학교 출신들의 끈끈한 선후배 관계

때문에 비리의 고리를 끊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특정군 및 학교 출신만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방위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사업관리의 투명성, 인력의 전문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방위사업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후배 관계 등 인맥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사업관리 조직의 인력 구성 다양화, 정보제공 확대, 감시시스템 보강 등의 대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 올해가 건군 제6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국군의 날인데 국민과 우리 장병들에게 보내는 당부 말씀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특히, 지난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 시 우리 장병들이 보여 주었던 일사불란한 전투행동과 빛나는 전우애, 그리고 전역을 자진 연기한 용사들을 통해 새롭게 변화한 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장병들이야말로 국군의 참모습이자 우리 국민들의 자랑스러운

다. 국민 여러분께서 늠름한 장병들과 군에게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지난해 6월, 제44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셨습니다. 후대에 어떤 국방장관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국방부를 흔히 ‘소정부’라고 칭할 정도로 그 영역과 분야가 광범위합니다. 그 만큼 국방정책의 스펙트럼이 넓고, 군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명령과 지시가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큼니다. 정책은 국방기획관리시스템에 의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일련의 연속선상에서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때문에 장관의 정책 기본개념과 방향을 명확히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을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국방의 올바른 변화를 주도한 장관으로 기억되면 하는 바램입니다. 즉,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군을 만들겠다는 본질에 충실하고, 통일기반을 마련하는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준비를 철저히 한 장관으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E]

‘통일 지상주의’에 빠지면 재앙온다

大韓言論 2015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작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표명한 후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다. 일부 언론매체들은 ‘통일나눔펀드’, 통일위한 ‘유라시아 친선특급’ 등 이벤트성 통일행사를 적극 벌이기 시작했다.

통일펀드 운동에는 초·중·고교 학생들로부터 장·차관에 이르기 까지 참여한다. 축구·야구 올스타전에서도 통일펀드 모금운동이 펼쳐지고 거스 히딩크 전 축구국가대표 감독도 통일펀드에 동참하기로 했다. 대기업인들로부터 소상공인들에 이르기 까지 통일펀드 열풍이 분다.

여야 정치권도 “보수·진보를 초월해 동의할 수 있는 통일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과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엔총회에 참석해서도 평화통일 문제와 관련 “심도 깊은 논의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北도발에 대한 경각심 약화시킬 우려

통일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 및 열망을 마다할 필요는 없다. “의지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강렬한 통일 의지는 통일로 뻗어가는 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통일은 북한에 막혀 우리의 의지대로 관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통일에 대한 기대와 열망만 자극한다면 ‘통일지상주의’로 빠져들 수 있다.

통일지상주의는 이념과 체제에 상관없이 어느 쪽으로든 통일만 되면 된다는 위험천만한 통일관을 빚어낼 수 있다. 또 통일 열기 확산은 동족의식을 고조시켜 북한 도발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북한 동포에 대한 퍼주기를 조장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일부 우리 젊은 세대는 베트남 통일을 지켜보며 ‘통일지상주의’에 빠져들었다. 베트남처럼 통일만 되면 ‘민족은 하나’ 되어 동족상잔의 전쟁도 없어 지므로 자유체제를 포기해도 통일만 하면 된다는 환상을 키웠다. 벌써 정치권에서는 “보수·진보를 초월해 동의할 수 있는 통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중간지대 통일론을 제기했다. 육군 모 보병사단장은 통일펀드에 참가하면서 “통일이 최고 안보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군 사안보를 통일 보다 앞세우지 않으면 안 될 군 지휘관조차 통일지상주의에 빠져드는 게 아닌가 우려케 한다.

박 대통령은 중국과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혀 중국 역할과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중국은 6·25 남침 당시 남한의 북진통일을 가로막았고 오늘에 이르기 까지 북한과 군사동맹을 유지, 북한을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中國이 우리편’이라는 것은 허상일 뿐

중국이 북핵 문제로 북과 결끄러운 관계에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북·중 두 나라 관계는 지난 5월 북한주재 중국대사가 밝힌 대로 “순치상의(脣齒相依:입술과 이빨 같이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실상 중국 전승절 기

특별기고



정용석

·단국대 명예교수
·전 남북적십자회담 대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념·체제 관계없이
통일만 되면 된다는
환상은 위험천만

中협력 아직 어렵고
北지도부 불안 조성
성급한 熱氣 자제를

념식 기간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의 한민족 평화통일 지지 언급은 주한미군 철수와 ‘반외세 자주통일’을 주장하는 북한의 ‘한민족 자주통일’ 노선과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은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중국 고위관계자를 통해 “한반도 통일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발표는 한국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기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평양을 의식, 남한 측과 통일논의를 하기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이었다.

중국은 북한과 ‘순치상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지할리 없다. 통일을 위해선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북·중간의 특수 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으로부터 자유민주 통일 지지를 끌어내기 어렵다. 그런데도 중국과 통일을 위해 ‘다양한 논의’에 들어간다는 등 중국이 우리 편에 서는 것 같은 언질은 중국에 대한 허상만 키울 수 있다. 북한 지도부에는 흡수통일 불안감을 자극, 몽니를 부리게 할 수 있다.

서독은 조용히 동독 주민봉기 유도

동서독 분단 시절 서독은 ‘통일 대박’을 내놓고 외치지 않았다. 1990년 동서독 통일 당시 동독 총리였던 로타 드 메지에르는 2006년 우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독일 통일의 주역으로 동독 ‘주민들’을 꼽았다. 그는 “서독 정치인들이 잘 해서 독일 통일이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1989년 동독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개혁을 요구한데 있다”고 했다.

서독은 ‘통일 대박’이니 통일펀드니 요란한 통일구호를 내건 일이 없다. 서독은 그 대신 동독을 불안케 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조건부 경제지원으로 동독에 자유사조를 스며들게 했다.

서독은 동독인들이 자유와 우유·빵이 넘쳐흐르는 서독을 동경토록 유도했고 동독인들이 “들고 일어나자” 주저 없이 통일로 몰아갔다. 드 메지에르의 지적대로 독일 통일의 주역은 서독 정치인들이 아니라 개혁·개방을 절규하며 들고 일어난 동독 주민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앞장서서 성급한 통일 열기를 퍼뜨려 국민을 통일 허상에 들뜨게 하며 통일지상주의로 빠져들 위험을 자초한다. 북한 지도부에는 불안감을 조성, 주민 단속만 강화케 한다. 지난 7월 볼프 마파엘 주한독일 대사는 “북한은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된 것처럼 남한에 합병될까봐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며 통일열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통일은 서독처럼 요란한 구호 없이 조용히 접근해야 한다. 이벤트성 통일운동 확산은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피로감을 준다. 오늘날 우리 국민은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산다. 지금은 ‘통일 대박’에 대한 환상적인 기대나 이벤트성 통일펀드 운동 보다는 ‘안보펀드’ 모금운동이 더 절실한 때임을 적시하기 바란다. [필자]

언론가 소식

제52회 방송의 날 기념식

방송협회는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52회 방송의 날 축하연을 갖고 명품 초고화질(UHD) 방송으로 문화강국 위상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협회는 비전 선언문을 통해 △2018년 평창올림픽 중계를 비롯한 명품 UHD 콘텐츠 제작 △전국 어디서나 UHD를 쉽게 볼 수 있는 미디어 환경 조성 △시청자 중심 방송 △UHD를 통한 해외 신시장 개척 등 중

점 비전들을 제시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을철 문화행사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은 10월 중에 프레스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한 가을철 문화행사를 갖는다. 회원들 전원에게 영화표 2장을 보내준데 이어 10월 13일(화) 담양 죽녹원 등을 시작으로 양구 두타연(10월 17일), 부안 내소사(10월 20일), 영월 청령포(10월 24일) 등지로 문화탐방을 계획하고 있다.



신영기금 창립 38주년 기념 리셉션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이사장 김창기)은 지난 9월 9일 고 정주영 명예회

장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서울 중구

5면으로 이어집니다.

‘빠른 통일’ 보다 ‘바른 통일’ 돼야 한다

大韓言論 2015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통일 여건을 바로 알자

분단 반세기만에 독일이 기적처럼 통일을 이루자 한국 민들은 흥분했다. 우리도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기 때문이다.

1993년 2월 파리에서 독일통일의 교훈을 얻는 한독 양국 지도자들간의 모임을 가졌다. ‘전직 국가원수회의’의 공동의장이던 신현확 전 총리와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수장이 마련한 자리였다.

이들간의 회의를 마치고 슈미트 수상은 “우리는 그동안 통일을 한 번도 이야기 하지 않았다. 동독에 속한 다섯 개의 주(州)가 스스로 바른 길을 찾아 독일연방에 가입 신청을 하도록 도와주었을 뿐이다. 서독은 러시아를 설득하여 동독 5개 주가 독일연방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 환경 조성에만 주력하였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 슈미트 수상은 사석에서 내게 한국이 통일을 원한다면 미국 및 일본과 가까이 지내라고 충고하였다. 많은 의미를 함축한 말이 었다.

독일과 한국은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으로 분단되었었다는 점과 동독과 북한에 공산당 1당지배의 전제주의-전체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이념적으로 공존할 수 없는 관계를 유지했었다는 점에서는 사정이 서로 비슷했다. 그러나 독일은 많은 점에서 우리와 사정이 달랐다.

우선 독일은 분단 이전까지 강력한 중앙정부 밑에서 한 나라로 통치되던 나라였지만 우리는 일본 제국의 식민통치를 받던 나라로 우리의 정부를 가지지 못했었다. 북한 정부는 ‘빈 땅에 세워진 새 나라’여서 조선-대한제국의 맥을 이어 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 중요한 차이점은 북한이 일으킨 6·25전쟁을 겪으면서 남북한 주민간에 씻을 수 없는 상호 불신과 적개심을 심어주었다는 점이다. 인구의 10%가 희생된 한국민이 쉽게 북한 정권 지도자들을 용서할 수 없게 되었다. 독일은 이런 엄청난 비극을 겪지 않았다.

또한 동독 정부는 공산전체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1당지배 전제 정권이었으나 최소한의 ‘정상국가’의 면모를 유지했다.

정상국가란 자국 인민의 안전과 복지를 1차적으로 생각하고 국제사회에서 약속한 것은 지키는 나라를 말한다. 북한은 지배집단의 이익을 인민의 복지보다 앞세우는 나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로 아직 ‘정상국가’가 되지 않은 상태다. 동독은 분단 시기에도 노인들의 가족 상봉을 무제한 허용했고 제한된 범위에서 통신, 통상을 허용했었다. 그리고 서독과의 약속은 모두 지켰다.

우리는 이런 특수한 여건에서 통일을 구상하고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통일 과제의 바른 인식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남북한 주민 모두를 아우르는 단일 민족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남북한을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통합하고 모두가 함께 단일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누리는 단일 정치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다. 현재의 ‘적대적 공존’ 상태에서 작은 교류부터 시작하여 통일정부 수립까지 이어지는 0%에서 100%로 진전하는 과정이다.

통일 정책은 이런 ‘움직이는 통일’을 염두에 두고 펼쳐야 한다. 독일도 ‘작은 걸음 정책’을 내세우고 조그마한 성취를 축적해가면서 동독을 ‘접근을 통한 변화’로 유도했었다. 참고할 일이다.



이상우

- 본회 회우
- 전 한국·조선일보기자
- 전 한림대 총장
- 현 신아시아연구소장

‘적대적 공존’서
‘협력적 공존’ 이루게
‘작은걸음 정책’ 필요

무력해방 꿈 못꾸게
압도적 군사우위로
국력 키워 나가야

통일 정책의 첫 단계는 현재의 ‘적대적 공존’ 관계를 ‘협력적 공존 관계’로 만드는 일이다.

북한은 아직도 ‘무력해방’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이에 맞서 우리는 ‘적극적 억지’라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불안정한 비전(非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차적으로 북한이 무력해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도록 압도적 군사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평화는 ‘공존에 대한 자발적 합의’를 말한다. 북한이 스스로 공존을 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평화는 ‘선한 자가 강할 때만 유지되는 질서’다. 북한이 무력해방을 포기하고 공존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주도하여 현재의 공존 상태를 ‘협력적 공존’ 관계로 제도화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기초 작업이 마무리 되면 북한이 스스로 체제를 개혁해나가는 일을 돕는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제2단계의 ‘접촉을 통한 변화 유도’의 단계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 체제와 상응성을 가지는 국가가 되면 정치 통일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산가족 상봉, 북한 주민의 인권보장과 같은 문제는 통일 정책 전개와 분리하여 지금부터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이 문제들은 ‘보편적 인권문제’로 통일을 넘어서는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통일 주체 역량을 기르자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이루려면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 한다. 힘은 국가 의지, 국력, 그리고 전략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힘=의지×능력×전략).

가장 중요한 것은 단합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창출해내는 일이다. 분단의 고통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이미 사라져가고 있다.

새 세대가 통일 의지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더 큰 대한민국’ 건설에 통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가르쳐야 한다. 국민이 통일 의지를 잃으면 통일정책은 ‘원인 무효’가 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이 교육의 책

임을 져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모두가 고른 복지와 인권이 보장된 자유를 누리는 부강한 민주국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북한 주민이 선망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 통일의 기본 조건이다. 경제적 우위, 이념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통일은 주변국의 지지와 축복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반도에 번영하는 자유민주국가가 들어서는 것이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주변국들에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범민족적 과업이다. 당장의 편의를 위해서 통일 정책의 기본 틀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도발이나 무리한 요구에 당장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우물우물 넘어간다면 소탐대실의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된다.

특히 정치인들이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 정책의 기본 틀을 허무는 일을 벌인다면 민족에 죄를 짓는 일이 된다.

우리는 ‘빠른통일’보다 ‘바른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통일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더 큰 대한민국’ 건설의 하나의 조건이지 그 큰 목표를 대신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북한 스스로 ‘더 큰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길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일정책 기본 틀’을 흔들지 말고 지켜 나가는 것이 ‘바른통일’을 빠르게 이루는 길임을 명심하자. [4]

4면에서 이어집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주영과 남북관계’ 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프레스센터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신영기금 창립 38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김은구 회장 흥원기 명예회장 등 대한언론인회 회우들도 다수 초청된 이날 행사엔 조

용중 원로 회우가 초창기 관훈클럽 창립배경을 설명 했고 이흥구 전 국무총리, 정몽준 국회의원도 참석해 축하를 했다.

신문·방송 어문기자 세미나

한국어문기자협회(회장 이경우·서울신문 어문팀장)는 지난 9월 4일 오후 4시 제주도 서귀포 컨싱턴제주호텔에서

‘정치적 올바름, 소통, 미디어언어’를 주제로 제 36회 신문·방송 어문기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하수 전 연세대 교수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언어 쓰기의 문제’를, 오새내 계명대 교수가 ‘현대 한국 미디어 언어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언어 표현의 역사와 실현 방식’을 주제로 발표했다.

관훈클럽 10월 28일 문화답사

관훈클럽(총무 이선근)은 오는 10월 28일(수) 충청남도 청양지역 문화유적 답사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 모덕사, 장곡사, 천장호 출렁다리 등 청양고추로 유명한 청양지역 명소를 두루 답사하게 된다.

참가인원은 선착순 120명이다. [4]

韓-美-中 ‘北위기 관리 협의체’ 필요

大韓言論 2015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이른바 ‘북한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핵심 기제는 한미 동맹체제이다. 그러나 한미동맹만으로 북한의 위협이나 갑작스런 변화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정권이 무너져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경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한미공조체제가 중요하나, 자칫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미중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반관반민 형태의 대화 이뤄질 수도

2013년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중국국제문제연구소(CIIS)-한국국립외교원(KNDA)이 반관반민(Track 1.5) 형태로 한미중 대화를 시작했으나, 후속 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일관계의 냉각 속에서 일본이 미국에 대해 한미중 대화에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게다가 북한의 급변사태 대응에 대해 중국이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는 상태에서 ‘한미중 전략대화’의 출범과 제도화는 쉽지 않다. 그러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국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가 악화되어 미중 양국의 입장이 수렴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한미중 공식 대화 또는 반관반민 형태의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내 ‘공포정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엘리트 구조의 균열이 발생해 ‘정권 위기’ 또는 ‘정권 붕괴’로까지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한미동맹을 공고화하고 한일 안보협력관계를 정상화하여 한·미·일 공조체제를 단단히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한·미·중 정부 간에 북한 위기관리 협의체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한국 측과 논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전제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해 중국 측이 가장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당사자중 하나는 한국일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뒀야 한다. 특히 중국 군부는 더욱 그러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상호간의 입장과 이해를 고려하면서 대화를 시작할 것인가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그 직후에 중국측에 북한 위기관리 협의체 가동을 제안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큰 틀에서 볼 때 통일한국의 비전을 정립하고 대 중국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한·중 전략대화의 체계적 운영이 급선무이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공개적’인 토의를 기피한다는 점이므로 (정부와 충분히 교감하는) 관련 전문가들을 활용해 한·중 전략대화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물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에서 한중 전략대화의 체계화 방안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

특별기고



김성한

·고려대국제대학원 교수

中과 물밑 전략대화로
北 4차 핵실험하면
바로 3국 협의 나서야

韓-美 동맹 공고화로
安보 튼튼히 하고
日도 도움되게 유도를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조정 중에 있으며, 중국 역시 분명한 전략을 지니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에 우리의 제안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협상 및 대응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전략대화의 사전조율과 사후점검을 위한 정부 내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이 맡을 수 있다. 그리고 한중 전략대화가 정무적 이슈에 집중한다는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미중관계처럼 한중 전략경제대화(S&ED)로 확대해 포괄적 논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한중관계를 단단히 관리해 나가는 가운데 한미중 대화체를 출범시켜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고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공식 대화체가 출범할 경우 한미중 전략대화에서 궁극적으로 다뤄야 할 주제 중의 하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이다. 평화체제에 대한 중국의 기존 입장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평화체제 구축의 장애요인으로 주한미군 문제, 북미 양국의 상호불신 문제, 남북한과 주변국의 평화체제 구축방향의 상이성 등을 지적할 것이다. 과거 중국은 미국에 대해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북핵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중국의 입장이 과거와 같은 것으로 나타날 경우 평화체제에 관한 미중 간의 인식차이로 인해 우리의 입장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고, 한미중 협력체제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美·中 양자협의로 분단 고착시킬 가능성 차단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반도에서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사안보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줄 수 있는 파트너는 동맹국 미국일 수밖에 없으므로 통일을 염두에 둔 대미협력 및 한미동맹 공고화에 관한 노력은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활용하여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본을 유도해야 한다. 특히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 지역 내 대량 난민 및 이탈자에 대한 한미일 공동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탈북 주민을 위한 피난소 및 난민 캠프 설치, 식량, 의료, 물자 등 인도주의적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한미중 협력을 통해 북한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협의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미중 양국이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양자 협의에 의해 ‘한국 건너뛰기’(Korea passing)를 하여 분단 고착화로 상황을 종결시킬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 북한의 미래와 관련하여 한국이 철저히 역량을 축적해 나가면서 미국 및 중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정책대안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

‘謹弔國監’이라

19대 마지막 국회의 국정감사를 두고 이슈도 전문성도 대안도 없는 三無국감이라는 평가에 심지어 ‘謹弔國監’이라는 칼럼까지 등장.

공직자 기업인 일반인 합쳐 4,175명의 증인 신청을 하며 대단한 의욕(?)을 보인 국회의원 나으리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 막말, 욕박지르기, 망신주기, 길들이기, 청탁 등 갑질의 못된 모습들. 경찰청장에게 권총사용 시연 요구(요구한다고 그대로 하는 청장이라니)에 “일어서서 물건 좀 꺼내보라”는 따위는 어느 종류의 행태?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당부처, 기관의 산더미 같은 국감자료가 들춰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쓰레기더미가 돼버리는 TV화면에서는 분노마저.

이런 상황이니 잊어버려가던 國害니, 국감무용론에 국회해산 소리가 또 들린다.

보다 못한 전문가들이 레드카드제 도입을 내놓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런 일부 저질 아닌 훌륭한 의원님들에 위안을 삼아야겠쥬.

최택만 (논설위원)

‘100자 발언권’

그만들 하시죠

‘귀족노조’ 소리를 듣고 있는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또 파업에 돌입.

연봉 9천만 원이 넘는 대기업 노조예다 공동파업의 위력을 과시하는 연봉 6천~7천만 원의 노조들이 바로 그들이다.

거기예다 창사 이래 兆단위의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 노조까지 창업주의 세계적인 명예도 전에 흠집을 내겠다고 버르고 있으니 할 말이 없다. 왜들 그러는가. 우리 경제는 벼랑길에서 허둥대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때는 노사가 온 힘을 합쳐도 살아남을지 말지 한데 이래서야 되겠는가.

지용우 (논설고문)

감사합니다—民·軍 합동정신

교통사고를 만난 여성을 구하고 자신은 희생된故 정연승 특전사 상사의 고귀한 정신에 칭송이 자자.

이 사고 직후 LG복지재단이 제1회 ‘LG 의인상’ 수상자로 결정. 1억원의 위로금을 미망인과 두 딸에 전달하는 등 고마운 뒷이야기가 이어져 화제.

북의 도발에 전역을 연기해 국민의 박수를 받았던 병사들을 특채한 기업들의 값진 기업정신과 함께 감사한 일입니다.

이철영 (편집위원)

살신성인, 백의종군

출발때부터 요란했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소용돌이의 당내 분위기와 반응을 일으키며 피날레?

혁신위원회는 9월 23일 △당내 종진들의 백의종군과 살신성인 실천 △하급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사람의 후보신청 자제 등 의견상으로는 대단한 방안을 내놓았는데도 결과는 거부, 난색, 반발. 심지어 ‘비노 살생부’나 ‘새정치도 민주도 찾아보기 힘든 그들만의 혁신’이라는 일부 극단적인 반응도. 살신성인을 요구당한 문재인 대표와 김한길, 문희상, 안철수, 이해찬, 정세균 대표님들 그리고 박지원 의원 등이 향후 갈길을 어찌 보일지 초미의 관심.

유한준 (편집위원)

예술자유 명분 나라흔들기 안된다

문화예술계는 최근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논쟁으로 들끓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특정예술가 배제 논란과 서울시립미술관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상황을 묘사한 그림 전시 논란이 문화예술계의 갈등을 넘어서 ‘사전검열’ 이슈가 돼 정치권, 언론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계 원로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지원금 선정 공정·공평하게 이뤄져야

문화예술계에 50여 년을 몸담았고 각 계각층의 문화예술인과 소통을 해본 사람으로서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책임’ 또한 막중하다는 데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금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민예총과 한국예총간의 갈등도 자주 보아왔다. 이런 이해상충과 갈등을 보면서 문화예술 행정가에게는 균형감과 원만한 행정처리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말은 쉬워 보이지만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심사위원 선정부터 작품선정, 지원금집행과 정산, 결과평가 등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뤄져야만 갈등과 충돌을 미리 막고 문화소비자인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서울시립미술관이 최근 ‘예술가 길드 아트페어’라는 전시회를 열면서 홍성담 작가의 ‘김기종의 칼질’이란 작품을 전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떼낸 것은 우리 사회에서 균형감과 공평공정함을 갖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 깨닫게 한다. 보수와 진보를 대변하는 두 중앙일간지는 극명하게 대립되는 주장을 실어 문화예술계만큼 우리 사회의 화해와 조화가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한다.

보수성향의 J신문은 “문화적 테러 ‘김기종의 칼질’”이라는 칼럼을 통해 홍성담을 비판했다. 홍성담은 그림 안에 이렇게 적어놓았다고 한다. “일제 때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한 안중근 의사도 우리 민족에 대한 절망감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형님 나라인 일본의 훌륭한 정치인을 죽인 강패도적쯤으로 폄훼했을 것이다. …암튼 김기종이가 칼질을 앓았던 과대망상증이든 그는 칼질로써 자신의 절망감을 표현했다.” 이 신문의 논설위원은 홍성담이 김기종의 테러를 안중근·윤봉길·이봉창 의사의 의거와 비교한 것으로 비판했다.

그는 1980년대 민중미술을 이끌었던 홍성담이 30여 년이 흘렀는데도 당시 ‘미제타도’를 외쳤던 운동권의 시각에서 한 치도 발전하지 못한 듯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작품이 그런 부류의 작가들이 주관한 전시회에 걸렸다면 그리 문제 삼을 이유가 없고 관심 없는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라면서도 ‘공허한 제국’이란 이름의 전시회 비용이 서

특별기고



이종덕

·광화문문화포럼 회장

표현의 자유만큼

사회적 책임도 중요

보수·진보 대립·갈등

하루빨리 봉합

문화정책 위축

경쟁력 퇴보 없어야

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테러를 미화한 홍성담을 서울시립미술관이 세금을 들여 선동의 장을 마련해 줬다고 꼬집었다.

진보성향의 H신문은 곧바로 “서울시립미술관 ‘홍성담 사태’ 기획자의 윤리적 태도를 묻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주 다른 시각을 내보였다. 신문은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흥기 피습사건을 작가가 나쁜 짓 성찰한 이 작품이 테러를 미화한다는 일부 언론의 공격으로 비난 여론이 일자 생긴 일이라면서 서울시립미술관이 애초 문제없다고 작품을 걸어놓고 작가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내쳤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표현수위나 완성도를 놓고 논란이 일 수 있어도, 작품을 테러 미화로 단정할 명시적 근거는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특히 사태의 발단과 전개과정에서 작동한 것은 정치였고, 미술 영역의 논리는 외면당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술관과 시장 기획자의 선택과 표현의 자유, 전시와 장터 사이에서 꼬여버린 이번 사태는 전시에 맞는 작품이라고 판단해 올렸으면 직위를 걸고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기획자의 윤리적 태도라고 했다.

범죄행위 옹호 예술작품 물의 당연

나는 예술의 자유를 옹호한다. 그렇지만 예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일에는 찬성할 수 없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에 테러를 가하는 것은 그 나라에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외교사절에 대한 공격은 단순히 테러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이 1심에서 김기종

오늘의 시대

이흥우 (본보 편집위원·상명대석좌교수)



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도 이런 인식에서 일 것이다. 명백히 범죄행위를 했고 그를 옹호하는 예술작품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예술의 자유와 현실간의 충돌 사례는 비단 이뿐이 아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창작산실 지원사업 연극분야에서 박근형 연출가의 작품(연극명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을 둘러싼 논란이 그 중 하나다. 예술위 직원이 심사위원들에게 박 연출가의 작품을 선정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하고, 심사위원들이 이를 거절하자 예술위 직원들이 박근형 연출가를 찾아가 출품을 포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예술위는 아르코문화창작기금사업 회곡분야에서 100점을 받아 1순위였던 이윤택 작가를 탈락시켰다. 박근형 연출가는 박근혜대통령을 풍자하는 것으로 보이는 연극 ‘개구리’를 무대에 올린 적이 있고, 이윤택 작가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연설을 한 바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전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진보 성향의 H신문은 “유신시대 방불케 하는 문화예술 검열”이라는 사설에서 직설로 예술위를 비판했다. 현

정부는 국가예산을 이용해 문화예술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비판 성향 활동을 체계적으로 억누르고 있다고 했다. 신문은 “폭력을 동원하든 예산으로 통제하든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적 검열이란 점에서 본질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를 문화정책의 규범으로 삼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런 식이라면 문화융성은 커녕 기왕의 문화경쟁력마저 약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공세를 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9월1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지원 사업과정에서 정치검열을 했다고 청와대의 해명을 촉구했다.

진보매체나 제1야당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개방된 사회,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인 한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이지 사전검열을 통해 이견을 통제, 억압한다는 군부독재 국가에 빗대는 주장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을 보이는 나라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부의 사전검열과 통제 억압을 그냥 넘어갈 리는 없지 않은가.

건전한 상식으로 국민 납득시켜야

문화예술이 대중에게,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크다. 영화 ‘암살’이 누적관객 수 1200만명을 넘어서면서 독립운동가로 항일 무장단체 의열단을 조직한 약산 김원봉(1898~1958)에 대한 관심 또한 뜨겁다. 스크린 속에서 매력적인 배우 조승우가 연기한 김원봉은 독립운동가로서 아주 멋져 보인다. 그렇다면 1898년생 밀양출신 김원봉이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독립운동가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 김원봉은 의열단 활동과 조선의용군을 창설한 독립운동가이지만,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로 분단 이후 월북해 북한정권에 참여했다가, 1958년 숙청당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유족의 신청으로 건국훈장 추서가 논의 됐지만, 무위에 그쳤다고 한다. 그런데 김원봉이 영화 ‘암살’ 흥행에 힘입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예술 작품은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고, 자기도 모르게 예술창작자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서 세상을 보게 하는 힘이 있다.

문화예술계는 작품의 대립과 갈등을 하루 빨리 봉합해야 한다. 자칫 이번 일로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문화정책이 위축되고 국가의 문화경쟁력이 떨어질까 우려스럽다. 문화예술계든 정치권이든 이견과 갈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 국민의 공감을 얻으려면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두고 국민을 납득시켜야만 할 것이라고 믿는다. 문화예술계에서도 예술가의 창작의 자유는 사회의 존립에 기여할 때라야만 예술 소비자인 국민들의 격려와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예술계는 스스로 이견의 표출과 토론을 통한 양보와 존중을 통해 성장하는 치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예술의 자유를 예술가 스스로 보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본문 10면]

노동계 언제까지 ‘强性’으로만 가나

노동자는 시민이다. 무직자와 실업자를 제외한다면 노동하지 않는 시민은 없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노동자는 주로 임금노동자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노동자는 또 다르다. 농민도 언제든 노동자로 행동한다. 서구의 영향으로 공무원과 교사들도 이젠 당당한 노동자다. 이 노동자 반열에는 연봉이 1억이 넘는 자동차 회사 생산직이나 항공사 기장도 있고, 심지어 신문 방송사 기자도 있지만 사용자를 겸한 자영업자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영세 기업주가 빠져 있다. 이들이 ‘노동자’로 분류되어 뭉치는 것은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노동자는 시민의 적이 아니라 시민이다. 그런데도 언제부터 노동자는 시민과 동떨어져 있는 집단처럼 되어 있다.

피 흘리는 ‘전쟁’은 어떻게든 피해야

민주주의는 ‘약자인 다수’에게 의존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느 사회든 빈부나 강약의 개념은 상대적이어서 자신이 빈자(貧者)이며 약자라고 여기는 숫자는 훨씬 더 많기 마련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자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대립구도로 나타난다. 사실 민주주의는 태생적으로, 상반되는 두 세력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어느 쪽이든 특권을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다시 말해 ‘평등’이야말로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의 진정한 목표인 것이다. 그리고 폭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느 쪽이든 위험한 일이므로, 피를 흘려야 하는 ‘전쟁’을 피하고 말로써 다수가 소수를 복종시키는 제도를 모두가 원했던 것이다.

그런데 전쟁은 계속된다. 민주주의를 한 지 70년이 되었고, 1인당 소득 2만 달러를 넘은 지도 한참인데 말이다. 서부시대처럼 총만 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백주에 살벌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전쟁의 당사자는 시위대와 경찰인데 그 시위대의 중심은 노동자 단체거나 그들과 늘 함께 하는 시민단체다. 그리고 그 시위의 대부분은 폭력적 불법 시위로 변질된 것이다. 천만이 사는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거리가 점령되고 경찰이 얻어맞고 경찰장비를 빼앗기고 경찰차량을 밟줄로 묶어 흔들어대는 건 이제 진풍경도 아니다. 모든 건 다 대통령 책임이라며 청와대로 행진하겠다고 나서는 시위대를 막기 위해 광화문에 경찰차로 치는 성벽(城壁)도 이젠 낯설지 않다.

무슨 명분이든 길거리를 점령하고 벌이는 이런 폭력성 시위가 계속되는 대도시 서울 밖에 없을 것이다. 외신도 이런 서울의 전쟁을 거의 뉴스로 취급하지도 않는다. 최근 폭력시위는 줄었다 하나 일단 시위가 벌어지면 폭력의 강도는 훨씬 세져서 그 살벌함은 과거 시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시위가 야간에도 벌어진다는 것이다. 촛불을 들고 시작하는 야간 시위는 사람들을 격동시킨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야간시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준다. 그런데도 우리는 야간시위가 언제든 벌어지는 건 헌법재판소가 심야 시위를 규제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집시법의 포괄적인 제한 규정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때문이다. 국회는 그런데도 국회선진화법 핑계를 대며 집시법 개정은 꿈도 꾸지 못한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야만적인 시위문화가 방치되는 것일까? 이렇게 해서 노동자는 무슨 이익을 얻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시위로 해서 겪어야 하는 시민의 불편과 국가적 손실은 어느 정도일까? 무엇보다도 무엇이 우리 경찰을 얻어맞고도 별다른 대항을 못하는 ‘관대한 경찰’로 만들었을까? 우리는 자주 표현의 자유를 언급한다. 표현의 자유는 사실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대표적 기본권

특별기고



전원채

·변호사

도심점령 폭력시위 갈수록 살벌해져 약자아닌 약자 무기로

노동 경직성 낮은 생산성 自省의 목소리 없어

이다. 헌법 21조가 정한 언론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그렇다. 이 표현의 자유가 바로 서울 도심지를 장악한 ‘약자아닌 약자’의 무기가 되어 있다.

급진좌파 상투적 발언 잇달아

다시 노동계가 시끄럽다. 지난 9월 13일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것을 두고 야합(野合)이라는 것이다. 노동계는 ‘2천만 노동자의 노동3권이 설 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한다. ‘노동자와 국민의 삶은 기업과 자본의 지배를 받게 됐다’는 급진좌파의 상투적인 발언이 뒤를 잇는다. 노사정위에서 임금피크제를 합의한 것도, ‘일반해고’에 동의한 것도 노동계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다. 그런데도 그들이 2천만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나 ‘국민의 삶’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굳이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 여전히 노동자는 약자이고, 우리는 사안(事案)이 대립할 때 약자의 형편을 먼저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동개혁이 화두가 될 정도로 우리 노동계가 ‘고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고질병은 바로 OECD에서 최고 수준인 노동경직성이다. 지금처럼 해고가 어려워져야 어느 기업가가 쉽사리 인력을 늘리려 들겠는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경직성에 터잡은 낮은 생산성이다. 단적인 예가 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 앨라배마 공장은 14시간에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지만 울산 공장은 31시간이나 걸린다. 울산 공장의 생산성은 유럽은 고사하고 인도 공장보다도 낮다. 미국 공장 생산직 연봉은 울산보다 훨씬 낮은 7천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당신이 사용자라면 어디에 공장을 짓겠는가? 이런 낮은 생산성은 대부분 무너진 근로윤리로 인한 것이다.

노동계가 약자라는 걸 십분 이해하면서도 이런 생산성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고개를 돌리게 된다. 물론 노동경직성은 사회안전망과 맞물려 있는 문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한쪽이 풀려야 다른 한쪽이 풀리는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일반시민으로서 노동계에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노동계가 공동체 전체의 시각에서 사안을 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우리 노동계에서 단 한 차례라도 근로윤리와 생산성에 관해 자기반성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가? 단

한 번이라도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고충동참을 거론한 적이 있는가? 우리 노동계가 임금인상과 고용안정만 줄기차게 주장했지 소액주주 배당에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진 적이 있는가?

이제 내년부터 정년이 늘어나면 설사 임금피크제를 한다고 해도 청년들에게 적어도 3년 정도는 ‘고용절벽’이 올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모두 다 알고 있는데도 다들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 이 일이 대통령이 앞장 선 청년희망펀드처럼 돈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정부가 올해 청년 일자리 사업에 투자한 돈만 1조8천억이지만 무슨 효과가 있었는가? 그 돈을 차라리 청년들에게 나누어주는 게 나았을 것이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누가 강요해서 될 일도 아니다. 모험에 가까운 투자를 해서 고용을 늘려도 기업주가 불안하지 않을 때 청년들의 일자리는 생기는 것이다.

이제 결론을 말하자.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리스나 스페인, 프랑스를 닮아가고 있다는 말이 나온 건 오래 전이다. 고학력 백수가 청년실업의 50%가 넘는 것도 같다. 청년실업률은 10%가 넘고 장년실업률의 3.7배에 이른다. 이래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기업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노동계는 박근혜정부가 자본가의 정부라는 상투적인 비난을 하기 전에 자신들이 할 일은 해야 한다. 거리를 점령하고 전쟁을 벌이기 전에 근로윤리에 대한 진지한 자기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국문]

仁川상륙전승 재연행사 본회 회우 대거 참관



전승 재연 행사를 참관한 본회 회우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고귀한 희생! 위대한 승리!’를 주제로 한 제 65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 본회 회우 29명이 참관했다.

해군본부 초청으로 6·25참전언론인회(회장 박기병) 회원을 중심으로 이날 전승 재연현장을 참관한 회원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인천상륙작전 그날의 감회를 함께 했다.

이날 전승작전 재연에는 독도함 대조영함 등 해군 함정 18척과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 17대, 항공기 22대 등 우리군의 최신예 입체전력에 한·미 합동군이 월미도 상륙의 실재를 보여줬다.

이 기념식이 끝난 후 심갑섭(전 인천문화재단 이사장)회우의 안내로 인천의 한국근대문학관을 견학하기도 했다. [국문]



대한민국 건국사 연구의 금자탑

시대를 만든 위인들

시대는 위인을 만들고 위인은 시대를 만든다. 시대와 위인은 서로를 규정한다. 위인은 시대가 낳은 비범한 개인이면서 시대의 지극히 중요한 현상으로 등장한다. 영국의 역사가 J. P. 테일러는 유럽 근대사는 나폴레옹 비스마르크 레닌이라는 세 사람의 거인들을 중심으로 쓸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은 당대의 현실에 미친 영향력으로 보나 사후 오늘에 이르는 유럽 근현대사에 드리운 그림자로 보나 분명 시대와 밀접하게 교감한 위인들이다. 그들을 읽는다는 것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읽는 것이다. 李承晩과 金九라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두 위인도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이 두 사람의 거인을 중심으로 쓸 수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 근현대의 여러 중요한 고비에서 반드시 만나는 인물들이고, 그 고비에서 그들은 탁월한 비전과 신념과 지도력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휘어잡았다. 그들을 자세하게 읽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자세하게 읽는 일이 된다. 원로 언론인 孫世一씨가 일찍부터 이승만과 김구 연구에 몰입하게 된 것도 이 두 지도자의 일생을 통해 한말에서 일제 독립운동 시기를 거쳐 해방과 정부수립에 이르는 파란만장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이미 1970년 그의 나이 35세에 깨알 같은 활자로 찍은 총 478페이지의 단행본 <이승만과 김구>를 펴내면서 그 서문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다. “이 책은 이승만과 김구의 개인적 전기가 아니다. 나는 이 책에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친 이 나라 역사의 가위 혁명적 시기를 살고 간 양인의 지도자로서의 정치행태와 그 관계를 좇아 오늘날의 이 땅의 정치문화의 문제점의 기원을 더듬어 보고자 한 것이다.”

‘정치전기학의 시발’ 평가

이 단행본이 나오자 당시 학계에서는 ‘한국 헌정사 연구의 선구적 성과’ ‘우리나라 政治傳記學의 시발’ ‘임시정부 연구의 본격적인 출발점의 하나’라는 찬사를 보냈다. 손세일씨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그의 필생의 작업의 시작에 불과했다.

손세일 회우 저서 ‘이승만과 김구’

그리고 마침내 그 단행본이 나온지 45년, 이제 그의 나이 80, 그가 올해 9월, 책 제목도 그때와 똑같은 <이승만과 김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새로 써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것도 이번에는 단권이 아니라 7권이다. 200자 원고지로 모두 2만3천장, 7권 각권의 페이지가 800페이지 내외에 이르



손세일 회우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의 꾸준한 자료탐색은 그의 역사서술 방법론과도 연관된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한 사람의 저널리스트로서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는 저널리즘 정신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 책을 집필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영국의 자유주의 저널리스트 C. P. 스콧의 유명한

45년만에 전 7권 巨帙완간 양대巨人 실증주의로 조명

는 입이 떡 벌어지는 巨帙이다. 70년의 단행본은 ‘新東亞’에 연재(69.9~70.9)했었고, 이번의 7권 전집은 2001년 8월호부터 2013년 7월호까지 장장 12년간 111회의 ‘月刊 朝鮮’ 연재를 마친 뒤 이를 다시 2년 동안 수정하고 보완해서 금자탑으로 빛어낸 것이다.

언론계 경력(조선일보사 기자·동아일보사 신동아부장과 논설위원)을 잠시 접고 국회의원을 세 번 지내는 ‘외도’의 시기에도 그의 관심은 항상 이승만과 김구였다. 그는 한시도 쉬지 않고 두 사람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역사학과 정치학계의 연구동향을 추적하고, 냉전 종식 이후 국내외,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새로 공개되고 발굴된 자료들을 부지런히 수집했다. 대학에서 연구를 직업으로 하는 학자가 아니라 언론 일선과 의정 일선에서 바쁘게 활동하면서 이러한 작업들을 지속한다는 것은 대단한 사명감과 집념 없

는 격언—‘사실은 신성하고 의견은 자유다’—를 연상시킨다. 결국 그는 역사란 논박할 수 없는 사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편찬하는 것이라는 실증주의 역사학 방법론에 동의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저널리즘 정신으로 집필

그러나 E. H. 카가 말했듯이 주관으로부터 자유로운 객관적 역사서술은 없다. 관점에 따라 평가가 극을 이루는 이승만과 김구에 대한 서술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거사 평가 문제는 현실에서 경쟁 대립하는 정치사회집단들의 이해관계와 세력관계를 반영하여 ‘기억을 둘러싼 계급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김일영, ‘건국과 부국’)도 그러한 사정을 말해준다. 손세일씨가 이 거대한 저술에서 엄격한 실증주의 방법론을 택한 것은 두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이데올로기화한 해석을 극복하고자 한 노력으로 보인다.

그는 두 사람을 다 ‘건국의 아버지’이자 ‘우리나라 민족주의의 두 巨峰’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중요한 점(한말 반외세운동, 계몽운동, 기독교 수용, 임시정부 활동, 해방 직전의 국내 무장진입 작전 구상, 반공과 반탁 등)에서 공통점이 많고, 둘의 관계는 독립운동 전 과정과 해방 후 單政論 이전까지 줄곧 협력적이었다는 사실을 세세하게 적시한다. 두 사람 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위인이라는 입장이다.

이승만 부분에 균형추 부여

그러나 저자는 이 책에서 김구 부분보다 이승만 부분에 좀 더 많은 자료를 동원한다. 그것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김구보다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더 냉정한 현실에 일정한 균형추를 놓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동안 학계에서 발굴되고 정리된 자료의 양으로 볼 때 김구보다 이승만 관련 자료가 더 많고, 본인들이 남긴 저술도 이승만은 방대하고 김구는 간소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료의 양이 아니다. 자료에 발언권을 주는 사람은 저자이다. 대한민국 건국사 연구의 결정판이라고도 할 이 책은 모두 3부 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1~2권) ‘양반도 깨어라 상놈도 깨어라’는 이승만과 김구 두 사람의 출생에서부터 3·1운동 때까지 그들이 지도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았고, 2부(3~5권) ‘임시정부를 짊어지고’는 두 사람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해서 해방을 맞을 때까지 간난신고 속에서 벌인 독립운동을 다뤘다. 3부(6~7권) ‘어떤 나라를 세울까’는 해방정국의 열광 속에서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과제를 두고 두 사람이 어떻게 고민하고 행동했는가를 추적했다.

책은 1949년 김구의 암살에서 끝난다. 이승만은 그로부터 영욕의 16년을 더 살다가 망명지에서 숨을 거뒀다. 두 위인은 최후가 비장하다는 점에서도 닮았다. 이제 그들 삶의 마지막 부분 서술이 기다려진다. [4]



글쓴이 김종심

·전 동아일보 논설실장
·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장

언론을 말한다

Inside Journalism

인사이드

‘다큐멘터리의 힘’을 보았다

다큐멘터리는 픽션보다 강하다. 그 힘은 진실에서 나온다. 진실은 허구보다 강한 것이다.

그린랜드 현실 실감있게 전달

다큐멘터리의 이 힘을 EIDF 2015 EBS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통해 지구라는 이 아름다운 푸른 별에는 우리가 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일깨워 주었다. 터키의 해변에 떠밀려온 세 살배기 아이의 시신 사진이 시리아 난민들의 목숨 건 엑소더스를 증언했듯이... 그리고 난민들에게 쫓겨 잡혀있던 유럽 국가들의 국경을 열게 했듯이...

EIDF를 통해 우리는 ‘초록의 대륙’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대한 얼음의 땅 그린랜드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 그곳의 원주민이 우리와 닮은 몽골리안이라는 것을... 그들을 지배하는 덴마크에게 독립을 요구한 젊은이들이 있었고, 1970년대에는 수메(Sume)라는 록 밴드가 혁명적 노래들을 불렀다는 것을... 젊은이들은 점차 그린랜드를 떠나 꿈의 땅 유럽으로 가고, 남은 원주민들의 투쟁으로 자치권을 얻었으나 아직도 완전한 독립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막연히 덴마크의 영토로만 파악하고 있던 동토 그린랜드가 한국 시청자의 안방에 성큼 들어와 앉은 순간이었다. 알면서부터는 그린랜드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관심사가 된다.

드론의 대량 살상 고발

‘드론’에서는 참치를 잡기 위해 개발된 무인 추적 장치 ‘드론’이 대량 살상 무기로 쓰이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였다. ‘드론’ 조종사의 폭로로 드러난 실체는 참혹하다. 미국의 네바다 주에 앉아 있는 컴퓨터 게이머의 원격 조종에 의해 1만6천 km 밖 파키스탄의 표적지를 폭격하는 것이다. ‘거리의 심리학’ 탓으로 게이머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 ‘드론’의 등장 이후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전투기 조종사는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 게이머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드론’에 의한 민간인 무차별 살상이 문제가 되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군은 알카에다만 공격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다큐멘터리는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반군을 아무리 죽이고 죽여도 오히려 그 숫자가 늘어만 가는 이유가 민간인 살상에 대한 젊은이들의 분노 때문이라고 이 다큐멘터리는 결론지었다.

‘지금이라는 이름의 선물’은 암 진단을 받은 한 살배기 아들을 위해 특별한

방송시평



유자효

- 본보 편집위원
- 전 KBS 파리특파원
-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EIDF 2015 영화제 출품작
알지못한 지구촌 진실 일깨워

선물을 준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렸다. 미국의 데이비드 오싯 감독이 만든 이 다큐멘터리에서 컴퓨터 게임 개발자로 일하는 라이언은 갓난아기와 닮은 아들 조엘이 말기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절망한다. 하지만 그는 곧 얼마 남지 않은 아들의 삶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다. 아들을 위한 컴퓨터 게임을 만드는 것이다.

라이언이 게임을 만드는 과정과 병마와 싸우는 조엘의 고통스러운 현실,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의 모습이 교차한다. 컴퓨터 게임이 단순한 즐길 거리를 넘어서 우리 삶의 진솔한 순간을 담아낼 수 있는 훌륭한 도구라는 것 그리고 그 도구를 통해 한 가족이 아픔을 받아들이고 승화하는 과정이 감동적으로 그려졌다.

근세사 회고 교훈 찾기도

광복 70년을 맞아 우리의 근세사를 회고하면서 교훈을 찾으려는 프로그램들이 각 방송사에서 시도되었다. KBS는 1894~1895년 청일전쟁에 관한 1시간 짜리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이 전쟁은 조선에서 중국과 일본이 패권을 다툰 전쟁이다. 아산만에서 시작된 전쟁이 황해 해전으로, 일본군이 평양 전투에서 승리한 후 만주, 요동반도 그리고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산해관(山海關)까지 확대됐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서양 국가들은 대부분 중국의 승리를 예견했다. 중국은 아편 전쟁 후 50여 년간 서양 열강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는 연전연패했지만 동양의 작은 나라 일본에는 이길 것

으로 보았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그 이유를 분석해 보여주었다.

당시 일본은 명치유신으로 개화에 성공해 군국의 새로운 기운이 넘쳐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단일 명령 체계를 갖춘 ‘국군’이란 개념의 군대가 존재하지 않았다. 청 제국 군대의 모태인 8기군과 몽골, 무슬림, 한족 부대가 있었으나 이들은 지역 단위로 나뉘어 분리 통치됐다.

해군은 북양, 남양, 복건, 광동 함대 등 4개 함대 편제를 갖추고 있었으나 예산은 서태후가 공공연히 빼돌려 별장 이화원에 연못을 만들고 인공 산을 만드는 데 써버려 주포에 장전할 포탄조차 없는 지경이었다. 황해 해전에서 중국은 10척의 군함 중 8척이 침몰, 파손되고 일본은 제해권을 장악했다. 총치휘관은 정치적 이유로 전쟁을 망설이고, 병사들은 훈련과 정신 무장이 안 돼 있고, 부대 간 유기적인 상호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군대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케이블 TV를 통해 중국 전승절의 열병식 퍼레이드 중계방송을 보며 121년 전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떠올려 보았다. 한국에게는 여전히 힘의 균형이 중요하고, 열강을 상대로 한 외교가 국운을 좌우한다.

KBS ‘그날’ 예능화 우려

다큐멘터리는 자칫하면 프로그램의 긴장을 놓칠 우려가 있다. EIDF 출품작의 상당수가 그런 수준을 넘지 못했다. 시청자의 눈을 잡지 못하면 아무리 중요한 메시지라고 해도 무력해진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그런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다큐멘터리가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 KBS의 역사 다큐멘터리 ‘그날’은 역사학 교수와 역사 교사, 시인, 영화감독, 개그맨 등이 출연자로 나오는데 재미있긴 하지만 자칫 예능화할 우려가 있다. 역사 다큐멘터리가 예능화하면 역사가 희화화될 위험이 있다.

사극은 역사적 사실에 허구를 덧입힌 것이지만 시청자들은 그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드라마 ‘징비록’에서 정철의 역할과 풍신수길의 인물 묘사 등이 사실과 다를 것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지만 청소년을 비롯한 시청자들은 사실인 줄로 안다.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역사 다큐멘터리의 역할이라고 할 것이다.

일본 방송의 사극은 철저히 역사적 사실에 바탕한다. 거의 다큐멘터리 수준인데 교육적이고 감동적이다. 작품의 완성도가 높기 때문이다.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 [본문 2면]

포털 '악마의'

광고계 뉴스유통
새누리당은 '기울어'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등 포털의 뉴스서비스 불
광고계와 새누리당이 인터넷에 만연한 유사언론
정해야 한다며 청원서를 내고 긴급토론회를 개최
중 계속 논란이 돼 언론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지난 9월 3일 한국광고총연합회, 한국광고주협회
국광고학회는 인터넷에 만연한 유사언론의 폐해를
개선시키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국회와 문화체육

광고계는 청원서에서 “무분별하게 난립한 인터넷
고 있으며 전체 언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광고 시장을 교란한
구체적으로 뉴스유통사인 주요 포털에 대해 신문

기여한 이익분을 언론계의 발전기금으로 환원토록
광학 한국광고주협회 상무는 “국내 주요 광고주
하고 있다”고 밝히고 포털의 유사언론사 제휴가 가
유사언론이 네이버 등에 기사를 노출할 수 있다는
는 것이다.

3년 전 270여개에 불과했던 네이버의 검색제휴
했다. 2005~2014년에 인터넷언론은 286개에서 5,9
통계도 있다. 포털들은 초기에 유력언론들과 협
행져왔다. 현재 네이버의 광고수입은 지상파 방송
뉴스 생산단가가 높은 유력언론들의 재산성은 약
계가 형성된 것이다.

광고계 움직임과는 별도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사’를 분석한 결과 여권에 불리한 기사가 야권에
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9월
과를 발표하고 지난 16일엔 포털사이트의 뉴스유통

여의도 연구원은 올해 1~6월 네이버와 다음의
여당 관련 부정적 기사는 다음이 508건, 네이버가
61건, 네이버가 55건 뿐이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는 “중립적 정보의
시각을 갖게 될 우려가 크다”며 “포털이 ‘악마의
된 기사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은 “포털뉴스는 국
“차방을 위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준과 원칙으로 뉴스를 노출시키고 배열하는지

이날 토론회에는 당초 참석의사를 밝혔던 네이버
한편 조선일보는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총 18
올라온 기사 1만 3,689건을 전수(全數)조사한 결과
기사를 단 한 번도 게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편향성에 대한 기사를 총 998건(네이버 관련 657건)
반면 이들은 자사에 긍정적인 메시지나 포털을
자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온 포털이 뉴스를 자
를 해온 것이라고 조선일보는 비판했다.

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원회는 지난 18일, 최근의
열어 △‘기사 배열 모니터링단’ 신설 권고 △기
등을 결정한 것으로 지난달 22일 확인됐다. 자체적
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네이버’와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는 지난 9월
제휴평가위’ 구성안을 밝혔다.
그간 개별 포털에 맡겨져 있던 뉴스제휴 기준과
부를 평가위에서 한다는 것이다. 의사결정에는 뉴
체 등 15개 단체가 참여한다.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
터,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신문
각 추천하는 2명의 인사를 반영해 최대 30명의 위
15명이 참여한다. 독립성을 위해 위원 명단은 모두

한국신문협회 허승호 사무총장은 “매체들이 개
했다”면서 “위원을 2배수로 둔것도 어느 위원이 특
투명하게 만든 조치”라고 설명했다. [본문 2면]

저널리즘

Inside Journalism

언론을 말한다

‘전집’ 도마에

개선 法제정 청원
어진 운동장’ 비판

공정·편향성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의 폐해와 여론에 지나치게 불리한 편향성을 시정하기 위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기간도 다가오고 있다. 한국광고산업협회 등 광고계 주요 3단체와 한겨레를 막기 위해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유통서비스를 규제교육광부에 공동으로 청원서를 제출했다. 언론의 폐해가 범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건강한 저널리즘 발전에 장애요인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광고계는 공정법을 적용하고 주요 포털사의 수익 중에서 뉴스가 차지하는 비율제정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언론의 80~90%가 유사 언론행위에 따른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포털과 기사제휴를 하는 점을 무기로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있다

매체는 최근 450여개에 달할 정도로 급속히 증가했다. 50개로, 신문은 2,989개에서 4,023개로 폭증했다는 지적이 있다. 뉴스제휴계약을 하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3사를 합친 것보다 많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화일로에 있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언론생태

서도 포털의 ‘모바일 뉴스 메인화면에 노출한 기사 수’에 비해 8배정도 더 많이 게재됐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3일 서강대학교 최형우 교수팀에 의뢰한 조사결과, 포털과 관련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모바일 뉴스 메인화면에 노출한 기사’ 중 정부·공공기관 관련 449건인데 반해 야당 관련 부정적 기사는 다음이

다. 언론의 흐름을 결과적으로 왜곡한다면 국민들이 왜곡된 ‘편향’을 통해 진실을 호도하거나 왜곡되고 과장된 ‘편향’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편향적이고 언론 위외 언론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이러한 총장은 “포털이 공정성을 믿게 하려면 어떤 기준을 갖고리즘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다음카카오 측 인사들이 불참했다.

일간 네이버와 다음의 모바일뉴스 메인 페이지에 대한 포털뉴스 서비스의 불공정·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언론사들은 이 기간 동안 네이버와 다음에 포털의 편향성, 다음 관련 341건)을 제공했다.

공정성을 옹호하는 기사를 수차례 게재해 단순한 뉴스제공을 넘어 적극적으로 취사선택, 편집함으로써 ‘언론사 행세’

는 네이버 기사 배열 공정성 논란과 관련한 회의를 열어 네이버 기사 배열 원칙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를 권고함으로써 기사 배열 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어느 정도

10월 2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뉴스

발표 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특정매체와의 제휴·퇴출여부 등 스캔들적인 언론관련 단체와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한국언론학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인권센터, 한국리더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등 15개 단체가 각 1명으로 구성하되, 실제 평가에는 단체당 1명씩 총 15명으로 공개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특별 위원에게 접근하는 일을 막도록 공개로 결정할 것 사안에 의사 결정을 행사할지 알 수 없도록 불

‘日 집단자위권’ 영향에 촉각

“선진국 대열 동참 자신감 보였다”

박근혜정부의 4대개혁 작업이 본궤도에 오른 9월 신문엔 역사전쟁·정치부패·대선후보자의 도덕성과 양당 내분 등을 검증하는 공적담론(public discourse)이 즐비했다. 선정주의·정파주의 보도가 줄어든 반면 한반도 안보관련 국제기사·전쟁 해설 등이 폭주, 신문 열독률을 높였다. ‘중국의 항일 승전 70주년’ 기념 퍼레이드(3일)에 참석한 박근혜대통령이 중국과 한반도 통일을 협의한 자주외교를 강대국 예측을 탈피하는 큰 발걸음이라고 신문 사실과 칼럼들이 한목소리로 높이 평가했다. 1895년 10월 민항후가 사해된 을미사변에서 비롯된 항일전쟁은 1945년 일제 패망까지 50년간 지속됐으며 2차대전 중 상해·동남아·만주·시베리아에서 광복군은 연합군을 지원했다. 그러나 미국 소련 영국 등 2차대전 승전국은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일본의 한국침략·임시정부의 항일전쟁 등을 외면했으며, 일본은 이런 연합군 전후 처리에 편승하여 한국 침략에 대한 공식 사죄와 전후 보상을 거부했다. 박대통령의 중국전승 70주년 행사 참석은 이런 부당한 대우와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한 반성촉구의 의미도 있다. 이홍구 전 총리는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 박대통령이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자주적 외교는 6·25전쟁·냉전·IMF 시련을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 동참한 자신감에 기초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박대통령의 자주적 외교가 평화통일 전략에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군의 한반도 상륙’ 우려

9월 19일 새벽 일본 집단자위권 관련 11개 법안이 지성인·야당·반전시위 시민의 격렬한 반발을 묵살하고 참의원을 통과했다. 조선일보는 사실 ‘정치 폭주에 아무도 제동 못 거는 일본을 보는 불안감’이란 표제의 사실로 “교전권을 부정한 일본 헌법 9조가 사문화됐다.”며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이끌어가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8일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 역사설명 코너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삭제, 아베정권의 본색도 드러냈다.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가쓰라 테프트 밀약에 버금가는 집단자위권선언은 미국과 일본의 사전 조율에 의한 것으로 ‘일본군의 한반도 상륙 봉쇄’가 박근혜 정부 외교 현안이 됐다. 박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비판했던 일부 신문들도 “일본군의 한반도 상륙을 우려한다”는 해설을 뒤늦게 실으며 일본 집단자위권 대응책을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동아일보는 “전쟁할 수 있게 된 일본, 전략적용일(用日) 고민할 때다”라는 사실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희생자였던 한국은 일본이 과거 침략과 식민 지배를 참회하기는

신문시평



박석홍

- 본보 편집위원
-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대우
- 전 언론법학회 감사

朴대통령 자주외교 높이평가
저질국감-의원막말 비판 봇물

커녕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부활한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의한 군사대국화는 동북아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최악의 경우 한국의 주권 행사가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른다고 동아일보는 경고하며 한국 국민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6·25전쟁 중에도 미국의 일본 지원 제의와 휴전 후 한일국교정상화 종용을 거부했으며 “한미방위조약도 부상하는 일본군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천명했다. 박대통령은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협맹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만은 꼭 봉쇄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막말 탐사보도

19대 국회 마지막 저질 국감을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가 탐사보도로 해부했다. 동아일보는 10~18일 국감장에 쏟아져 나온 저질 막말로 “일어서서 회장 ‘물건’ 좀 꺼내보세요. 내가 좀 보게”(김용익), “선관위가 세종대왕의 한글이 부끄러울 정도의 판단을 했어요”(정청래), “아들의 뽀뽀한 거짓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극형을 처해야 합니다.”(안민석)등을 뽑았으며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에게 “한국과 일본이 축구경기를 하면 한국을 응원하십니까?”(박대동)라는 유치한 질문도 막말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정권 집권 초기 잠실 고층 롯데건물 건립을 반대하다 공군 고위장성들이 전역된 배경을 질문했다면 국회정무위원회 다운 국정감사였을 것이다. 중앙일보는 ‘국감 위스트’로 경찰청장에게 모형총을 주고 “격발해보라”고 주문한 유대운 의원을 고발했다. 13만 경찰을 무시한 지나친 처사라고 비판하

자 의원은 사과 했으나 지난 5월에도 지구대경찰에서 국회의원 권력을 남용해 화제가 됐던 전력이 있다. 조선일보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받는 문희상 의원,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된 박원순 시장을 거론하며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공격했고 김재윤 권은희 의원 검찰 수사도 같은 당 소속의원들이 부당하다며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안철수 새정치연합 전 대표 표는 20일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 부패를 감싸는 것은 잘못이라며 대법원 판결 불복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안의원은 국회의원의 막말로 부패기준에 적용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김창준 전 미국연방 하원의원 기고문을 통해 국회의 국정감사제도를 없애자고 주장했다. 미국의 회계감사원 같은 전문기관에 감사를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정희정부시절 신두영 감사원장 한 명만도 못한 19대 국회의 국정감사를 고발한 신문의 국회감사무용론과 저질국회의원 퇴출논의가 20대 국회의원 선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국사교과서 왜곡 바로잡기 촉구

조선일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쟁을 보도하며 ‘국정 밀어붙일 만큼 충분히 준비됐는가’라는 사실로 교육부의 국사교과서 개편 의지를 타진했다. 국사 교과서 수정은 가장 열띤 논쟁을 일으켰으나 정파주의 보도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부정확하고 왜곡된 교과서 수정작업을 진보 보수의 이념 대결 구도로 잡고 논쟁을 유도한 것부터 잘못된 시각이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시비를 제기한 김영삼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로 시작된 국사교육 왜곡은 이명박정부에서 절정을 이루어 최근 교육부가 검인정 역사 교과서 오류 1,281건을 수정지시할 정도다. 분단과 6·25전쟁까지 왜곡했던 검인정 국사교과서 수정은 언발에 오줌누기였다. 정치학자 동양사학자 서양사학자들은 현행 국사교과서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백범 일지는 상해 임정의 국민대표회의가 ‘붉은 돈’ 20만원으로 개최된 잡동사니 회라고 단언하고 김구 내무총장 직권으로 공금횡령법 김립의 총살형으로 일단락 됐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국사교과서는 창조 개조 타령만하고 있다. 백범은 이동휘 안병찬 등 사회주의자들이 일으킨 분란이라고 지적했으나 교과서엔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정직하지 않다. 사회주의 이념 추구 굴레에서 벗어나 역사의 진실과 교훈을 밝히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7]

2015 대한언론상 발표

11월 17일 프레스센터서 시상식

대한언론인회는 9월 23일 오후 금년도 대한언론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조선일보 특별취재부 정권현부국장 최경운 최재훈 기자를 금년도 기획 취재보도부문 수상자로, 대한언론인회 문명호 주필, 성낙오 편집위원장을 특별공로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17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갖는다. 수상자들의 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획취재

조선일보 특별취재부 정권현부국장 · 최경운 · 최재훈 기자



정권현 부국장



최경운 기자



최재훈 기자

〈공적사항〉

2014년 11월 20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총 9회에 걸쳐 ‘내가 모르는 내 아이’ 특별기획 시리즈를 통해 아이들이 겪고 발산하는 여러 문제의 원인이 부모에게 있음을 집중 탐사 보도해 바람직한 부모와 아이의 관계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

특별공로

문명호 대한언론인회 주필



문명호 주필

〈공적 요지〉

문명호 주필은 2008년 초부터 2015년 현재까지 대한언론인회가 발행하는 정론지 ‘대한언론’의 논설 고문 및 주필 직을 맡아 열과 성을 다해 신문제작에 헌신하였으며 특히 2013년 ‘위기의 한국진단’, 2014년 ‘국익과 언론’, 2015년 ‘나라바로세우기’ 캠페인을 주도했으며 매월 시의 적절한 주제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필자 선정 등 신문제작에 남다른 열정을 보임으로써 대한언론인회의 정체성 확립과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별공로

성낙오 대한언론인회 편집위원장



성낙오 위원장

〈공적 요지〉

성낙오 편집위원장은 2008년 초부터 2015년 현재까지 대한언론인회가 발행하는 정론지 ‘대한언론’의 편집위원장 및 주간 직을 맡아 열과 성을 다해 신문제작에 헌신하였으며 특히 2013년 ‘위기의 한국진단’, 2014년 ‘국익과 언론’, 2015년 ‘나라 바로세우기’ 캠페인 등을 주도, 매월 시의 적절한 주제로 대안을 제시, 보도함으로써 대한언론인회의 정체성 확립과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5 대한언론상 심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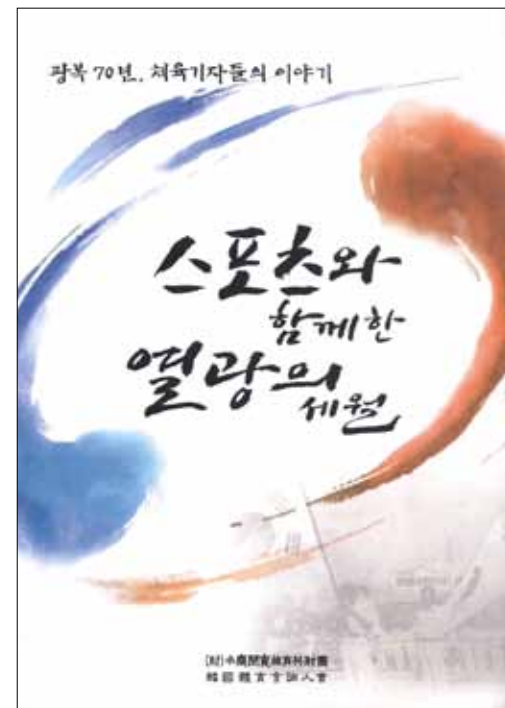
위원장 : 인보길 위원 : 구월환 도준호 박우정 한중광

‘스포츠와 함께한 열광의 세월’

한국체육언론인회서 책 펴내

김광희(본회 자문역·전 동아일보 도쿄지사장)회우 등이 집필한 <스포츠와 함께한 열광의 세월>이란 제목의 책이 나왔다.

나라가 어려울때마다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원천이었던 우리나라 스포츠의 뒀안길을 그려낸 이 책은 △김광희 회우가 쓴 도쿄올림픽 당시의 ‘아, 금단야!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 △고두현 회우(논설위원)의 김기수 타이틀전 이야기 ‘흔들리는 앞새가 속삭였다’ △최영정 회우의 김택수 박두병 장기영 김성곤 고인들의 골프화제 ‘골프 꾸러기들의 순정’ △이태영 회우(상담역)의 몬트리올 올림픽의 양정모 이야기 ‘올림픽 금메달—그토록 기다렸던 순간’, 에베레스트의 고상돈 회고 ‘못가본 길이 아름답더라’ ‘손기정의 하염없는 눈물’ △박세호 회우의 ‘올림픽방송 새 역사 창조한 서울올림픽’ △노진호 회우가 쓴 이예리사 등 여자탁구 단체전 우승의 순간인 ‘사라예보 영광 국민 모두가 행복했다’ △이종세 회우의 ‘아 옛날이여... 한국 마라톤의 오늘’ ‘세계의 변



방에서 중심으로—유도발전 이야기’ 등이다.

이 책은 우리회우들 외에 퇴역체육기자들도 함께 집필한 책으로 대한체육언론인회(회장 박태웅)가 펴낸 것으로 재단법인 소강 민관식육영재단의 지원으로 출간됐다. 374페이지. 비매품.

사우회 소식

동우회장 배 바둑대회

동아일보

동아일보 사우회(회장 김태선)는 지난 9월 18일자로 동우회보 44호를 발간했다. 제3회 동우회장 배 바둑대회(10월 14일 동우회 사무실)소식을 머리기사로 나온 이번호엔 본회 이정운(전 동아일보 출판국장)회우가 ‘자랑스런 동우’로 소개 됐다. ‘남해 고아의 아버지’로 남다른 봉사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취재해 실었다. 본회 김광희 상담역의 ‘세정낙수—천안문의 위력시위’, 최희조 본회 편집위원의 이낙연 전남지사 특별인터뷰, 동우회 산클럽 소식(6면), 8~9면 동우 탐방, 최명우 본회 편집위원의 글 등 많은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고문 및 원로회원 위문, 추석선물 전달

한국일보

한국일보 사우회 제재형 회장(본회고문)은 지난 9월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종규 전 한국일보 사장, 이형 한국일보 창간기자(논설위원), 이원홍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전 문공부장관), 김성우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 권혁승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 홍순일 전 코리아 타임스 편집국장, 손일근 전 백상기념관장(가천대 교수)등 한우회 고문 및 원로회원 20여명을 위문, 간담회를 갖고 추석 선물을 전달했다.

‘연합역사관’ 설치 추진

연합뉴스

연합뉴스 사우회(회장 김덕성)는 최근 ‘연우회

보’ 7-8월호를 발행했다. 회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연합이 걸어온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 ‘연합역사자료관’ 설치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KBS 인’ 특별서가 마련

KBS

KBS 사우회(회장 전봉찬)는 지난 9월 1일자로 사우회보 161호를 발행했다. “KBS 도서관, 사우회 회우 특별서가 ‘KBS 인’ 서가로 확대” 머리기사에서 8월 20일 현재 회우 81명이 저술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7면 ‘1970년 부산의 스타 아나운서들 로스구이 집에 모이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돋보인다.

사우회 하반기 행사 일정 확정

MBC

MBC 사우회(회장 김수량)는 지난 9월 15일자로 사우회보 31호를 발행했다. 이번호는 사우회 상반기 행사 일정을 머리기사로 싣고 있다. 9월 16일(목) 골프대회, 10월 8일(목) 낚시대회, 10월 16일(금) 문화탐방, 10월 21일(수) 등산대회, 11월 5일(목) 바둑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 일정에 사우회는 많은 사우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특히 김종학 사우의 2주기를 맞아 ‘여명의 눈동자’를 재조명한 기사(6~7면 특별기고)가 돋보인다.

살며 생각하며

다시 만난 책, 〈바다 한가운데서〉

무척 기분이 좋다. 내가 서툰 솜씨지만 그래도 정성을 쏟아 번역한 책을 방금 받아 들고 뒤적이고 있다. 장정이나 편집이 깔끔하여 옮긴이로서 흐뭇한 희열과 보람을 느낀다. 〈바다 한가운데서〉라는 책이다. 미국의 해양사학자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너대니얼 필브릭(Nathaniel Philbrick)이 2000년에 쓴 〈IN THE HEART OF THE SEA〉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서〉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년 전 에식스호(號)라는 미국 포경선이 성난 향유고래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 후 고래잡이 선원들이 겪은 처절한 표류기이다. 이 책의 주제가 된 고래잡이배 에식스호의 조난은 20세기의 신화적 비극인 타이태닉호의 침몰에 버금가는 19세기의 가장 비극적인 해양 참사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고전작가 허만 멜빌은 에식스호가 몸무게 80톤에 가까운 성난 고래에 떠받쳐 침몰한 사건에서 영감을 얻어 미국 문학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되는 〈백경(白鯨·Moby Dick)〉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경〉은 야수 같이 무시무시한 고래에 떠받친 포경선 파퀴드호의 침몰과 야성적인 집념의 화신 에이함선장의 죽음에 클라이맥스를 이루면서 끝난다.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서〉는 고래잡이배가 난파되어 침몰하고 나서 시작된 고래잡이 선원들의 죽음과 삶이 얹힌 표류를 주제로 삼고 있다. 모선이 바다에 가라앉은 뒤 그 선원 스무명은 세 척의 작은 보트에 나눠 타고 표류하게 되었다. 그들은 처절한 갈증

과 굶주림 속에서 거친 풍랑과 폭풍우와 싸우며 장장 94일 동안 무려 7,200km의 대양을 떠다녔다. 그들은 당시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태평양의 망망대해에서 아사 직전의 극한 상황에 몰리자, 연명하려고 동료들의 인육을 먹기까지 한다. 처음에는 질병이나 쇠약해서 죽은 동료의 시체를 그런대로 격식을 갖추어 수장(水葬)해 준다. 그러나 식수와 식량이 동이 나자 죽은 동료의 시체를 나눠 먹는다. 그러다가 중국에는 제비를 뽑아서 동료를 죽여 그 인육을 먹기에 이르게 된다. 그런 처절한 비극 끝에 간신히 여덟 명이 살아남아서 구조된다.

〈백경〉이 인간 내면에서 상극을 이루는 영혼과 혈기, 문명과 야만성, 선과 악, 현실과 영원성, 사랑과 증오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대서사시라면, 〈바다 한가운데서〉는 인간 생존의 냉엄한 진실을 그린 극사실적인 다큐멘터리이다.

이 책의 저자는 표류자들이 비정한 자연과 인간의 한계와 맞서 절망과 공포와 굶주림과 싸우면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처절한 과정을 무서우리만



한영탁

·본회 회우
·수필가
·전 세계일보 논설위원

큼 냉혹하게 재현해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생명의 가치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역(逆)으로 일깨워주고 있다.

나는 이 책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저자의 방대한 문헌조사와 철저한 고증에 감탄했다. 탐사 저널리즘(Investigative Journalism)의 백미라고 할 만하다. 이

책은 19세기까지 성행했던 미국 포경산업의 본거지인 대서양 연안의 섬사람들이 겨우 200톤급의 범선을 타고 멀리 남아메리카 남단을 돌아 태평양까지 나가 고래잡이를 하며 바다를 일군 모험에 가득 찬 해양개척사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서〉는 이번에 처음 국내에서 번역돼 나온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출간된 직후인 2001년에 J출판사의 청탁을 받고 내가 번역해서 출판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해 이 책의 청소년판(版) 〈고래의 복수〉도 나의 줄역으로 나왔다.

그런데 지난해 말 어느 날 낯선 D출판사의 K대표라는 분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바다 한가운데서〉를 다시 출간하려는데 그 번역자가 되어

달라는 청이었다. 나는 좀 의아했다. J출판사가 출판에이전사와 독점 계약으로 펴낸 책을 새로 내겠다는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K대표는 J사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자기네가 새로 번역출판의 판권 계약을 맺고 책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곧 나의 의문은 풀렸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15년 전에 청소년판까지 나와서 제법 많이 팔린 책을 다시 출간하겠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전자 매체의 득세로 종이책이 잘 팔리지 않아서 출판 시장이 극도로 악화돼 있다는데 그 책을 다시 내어도 되겠느냐고 걱정스럽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K씨는 한 번 소개된 책이지만 그 책에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아서 오로지 좋은 책을 더 널리 읽고 싶다는 뜻에서 재출간을 마음먹었다고 담담히 말하는 것이었다.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찌릿한 감동을 받았다. 모처럼 느껴보는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책을 읽는 일이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의 사회 풍조 속에서 재정적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양서를 펴내겠다는 한 출판인의 신념과 열정을 읽을 수 있었다. 마음이 든든하고 흐뭇해졌다. 나는 이처럼 뜨겁게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책이 아무리 푸대접 받는 시대라 해도 좋은 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책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양서가 인류의 좋은 빛이자 길잡이로 길이 살아남을 것이고 마땅히 그래야만 된다고 믿는 사람이다. [출처]

나라살림, 가정살림



김휴선

·본회 회우
·전 MBC보도국 부국장



벽에 걸린 그림.

안사람과 뒷산에서 아침운동을 하고 오다가 옆 동네 아파트 앞에 내다버린 그림 한 점을 가져와 우리 집 거실 벽에 걸어 놓았다. 행하던 거실 뒷면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항시 거실 벽에 뭘 하나 걸기는 걸어야 하는데 생각하고 있던 터라 이번에 주워 걸어놓은 그림이 딱 안성맞춤이다. 아마 누가 이사를 가면서 그림 몇 점과 글씨 몇 점을 내다 버린 것 같다.

매화와 동백꽃에 참새 두 마리가 사랑을 나누는 그림이다. 나는 밖에 나들이를 하고 돌아오면 그 그림 앞에서 살포시 미소를 지으며 만족을 취한다. 그렇게 싫어하던 작은 아들도 아버지가 좋아하니 수궁을 하는 모습이다. 국가 살림살이도 가정살림과 다를 바가 없다.

최근에 우리 동네 뒷산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헐고 새로운 놀이터를 만드는 공사가 한창이다.

매일 가는 등산길은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망치소리로 요란하다. 4~5년 정도 된 학습장을 겸한 어린이 놀이터를 헐어내고 다시 공사를 하느라 야단법석이다. 웬만하면 고쳐서 쓰거나 아니면 부실한 곳을 손 봐서 쓰면 될 것 같은데 몇 년 되지 않은 멀쩡한 놀이터를 부수 버리고 공사를 하고 있

다. 새로 놀이터를 만든다니 나빠 할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이다.

연말이 되면 시내 여기저기서 공사를 하느라 불편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말쑥한 도로를 파헤치고 새 보도블록을 깐다든지 상수도 공사다 하



어린이놀이터 공사.

수도 공사다 해서 공사판이 벌어지는 것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 해에 책정된 예산을 다 써버리기 위해 멀쩡한 장소에 공사판을 벌인다고 한다. 이는 시청이나 구청 등 지자체에서 넉넉하게 책정한 예산을 그해에 다 소진하기 위한 것이다. 책정된 예산을 다쓰지 않으면 그 다음해에는 남은 예산만큼 깎는다는 말을 들었다. 이는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다. 구청이나 시청, 중앙정부나 예산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의 잘못된 행정은 고쳐야 한다고 본다.

지금 우리나라의 빚이 위험수위까지와 있다. 2016년 국가채무 예상치는 645조 2000억 원이고, 2015년 기준으로 가계 부채만도 1130조 5000억 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2199만원에 가구당 6043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는 바람에 우리 경제도 일단 한숨을 돌렸다고 한다.

다행이지만 12월경에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다. 넉넉하지 않은 우리나라 살림살이는 그저 ‘아껴 쓰고 절약하고 다시 쓰고 바꿔 쓰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내가 마치 그림 한 점을 주워다 벽에 걸고 만족을 얻은 것처럼 말이다. [출처]

溫故知新

안중근의사의 순국정신



황원갑

·본회 회우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소설가
·역사 연구가

들며 일본 군경과 싸우다가 이토가 하얼빈에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민족의 원수, 동양 평화의 적 이토를 몸소 처단하고자 결심했다. 안 의사는 그 해 10월 21일 동지 우덕순·유동하 등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 하얼빈에 도착해 그날을 기다렸다.

마침내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께 이토가 탄 특별열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와 밋고 이토가 열차에서 내려 러시아군 의장대를 사열한 뒤 각국 영사들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권총을 뽑아 들고 뛰쳐나간 안 의사는 이토에게 총탄 네 발을 연

사했다. 첫 발과 제2탄은 이토의 가슴에, 제3탄은 배를 관통했다. 의거가 성공하자 안중근 의사는 “대한만세(코레아 우라!)”를 세 번 외치고 태연하게 러시아 헌병에게 붙잡혔다.

하얼빈 역에서 300m쯤 떨어진 만주동청(東淸)철도국 사무실로 끌려간 안 의사는 “나는 대한 의병 참모중장으로 서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적장을 총살, 응징했다”고 당당히 진술했다.

러시아군에서 일본영사관으로 넘겨진 안 의사는 그 뒤 200여 일 동안 뤼순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다가 이듬해 3월 26일 조국을 위해 귀중

한 한 목숨을 바쳤으니 꽃다운 나이 31세였다.

한스럽고 통탄스러운 사실은 안 의사가 순국한 지 105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무덤과 유해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각할수록 우리 못난 후손들은 참으로 안 의사를 비롯한 선열들께 면목이 없다.

아직도 안 의사의 유해를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안 의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일본이 매장지를 철저히 비밀에 부쳤으며 관련 자료도 모두 소각해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하얼빈 주재 일본영사가 “안중근의 유해를 절대로 가족에게 인도하지 말라”고 관동도독부에 보낸 전문이 최근 발굴되기도 했다. 또 중국이 안 의사의 매장지에 아파트를 지었다는 소리도 들린다.

해마다 안 의사의 의거일과 순국일만 되면 기념관을 새로 더 크게 짓느니 세미나를 여느니 하지만, 이보다는 안 의사의 거룩한 순국정신을 제대로 진지하게 되새겨보는 것이 좋겠다. 지금 우리는 또 다시 국가적으로 난국을 맞았다. 정치도, 안보도, 경제도 앞길이 험난하기만 하다. 국난 극복의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안 의사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다. [필자]

우리 잔칫상이나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술이 있다면 막걸리일 것이다.

이 막걸리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함께 해 온 소박하고 친근한 술이다. 예로부터 막걸리는 취하기 위해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쁨을 더해 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슬픔을 덜어 주며, 괴로울 때는 한을 풀어 주는 우리 민족의 정을 담은 술이라고 했다. 특히 농부들은 열심히 일한 후 마시는 막걸리 한 사발은 허기를 면하게 해주고 기운을 북돋워 줘 어깨춤이 절로 나게 해 주는 일종의 피로회복제였고, 먼 길을 가다 주막에서 마시는 막걸리 한 사발은 답답한 가슴의 응어리를 풀어 주는 위로주가 되었다. 이규보의 시에 “나그네 창자를 박주(薄酒)로 푼다”고 한 것을 보면 막걸리는 예나 지금이나 서민이나 빈민이 마셨던 대중적인 술이었음을 알 수 있다.

6·25전쟁을 치른 후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 배고픔을 덜기위해 양조장에서 술지게미를 얻어다가 밥 대신 끓여 먹었던 걸 기억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당시 막걸리 술지게미를 먹고 취해 비틀거리며 학교에 가던 생각이 난다.

50~60년대 우리 영화를 보면 어른 심부름으로 큰 주전자에 막걸리를 받아오던 모습을 보게 된다. 당시만 해도 막걸리는 그저 생산한 양조장만 있을 뿐 지금처럼 다양한 브랜드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렇던 막걸리가 웰빙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사람들이나 장·노년 등이 많이 찾자 이제는 일반 가게에서 대형쇼핑몰이나 백화점까지 판매처를 넓혔고 공항 면세점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薄酒에서 이젠 名酒가 된 것이다.

지금은 전국에서 지역특산물을 이용

한 막걸리 등 100여 가지가 나오고 있다.

막걸리는 참쌀, 보리, 밀가루 등을 시루에 찌서 적당히 말린 후에 누룩과 물을 섞고, 일정한 온도에서 발효시킨 다음 청주를 떠내지 않고 그대로 걸러 짜낸 술이다. 색이 희고 탁하며, 알코올 성분이 5~7도 정도의 약한 술로 탁주(濁



이보길

·본회 회원사업위원장
·전 KBS 해설위원

여 1,000배 이상의 식이섬유소가 들어있다고 한다. 식이섬유소는 대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와 심혈관계 질환, 암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작용을 한다. 또 막걸리엔 단백질이 1.9%나 들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맥주는 0.4%, 포도주는 소량, 소주와 양주에는 단백



민족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막걸리.

酒), 농주(農酒), 재주, 회주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연구진에 따르면 막걸리에는 다른 식이 음료들과 비교하

질이 들어있지 않다. 그 외에도 막걸리에는 비타민 B 복합체와 유기산,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영양소가 풍부한 술이라고 할 수 있다.

막걸리에는 요구르트보다 100배 더 많은 유산균이 들어있다. 보통 생 막걸리 100ml에는 1억~100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있다. 이는 요구르트의 100배 이상으로 장 건강을 활발하게 해주고 유해성분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술보다 칼로리가 낮다. 150ml당 69kcal이며, 술 100ml를 기준으로 와인 은 70~74kcal, 소주 141kcal, 위스키는 250kcal 정도.

최근에는 막걸리에 관한 다양한 연구보고도 있는데 발효과정에서 항암물질이 생성된다는 보고도 있고,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도 있다.

한국식품연구원 식품분석센터 하재호 박사 연구팀은 막걸리 아래 가라앉은 부분에 항암물질인 ‘스쿠알렌’과 ‘파네놀’이 많이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맥주에 비해 스쿠알렌이 200배나 많다”며 마실 경우에는 흔들어 먹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무리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하지만 술이기 때문에 적당히 마시는게 몸에 좋을 것이다. 등산이 봄을 이루는 요즘 내려오는 길에 막걸리를 지나치게 마시면 등산의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등산 자체가 근육에 피로를 많이 주는 운동인데 막걸리를 과음하면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젖산성분이 근육 피로를 더욱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막걸리는 누룩이나 효모를 사용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유통기간을 꼭 확인 후 마셔야하며 더운 날씨에는 오래 두면 좋지 않다.

영양성분이 풍부한 막걸리를 적당히 마시면, 몸에도 좋고, 스트레스도 풀고, 1석 3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잊어서 안 될 것은 지나친 과음은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이다. [필자]

원로에세이 — 어제 오늘 사이

나이와 세월과 생명과

임홍빈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전 경향신문 논설주간
·(주)문학사상 대표



지금도 어쩌다 그 생각이 떠오를때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진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년전... 그때 나는 중학교 2학년이었다. 자주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주시던 큰 누님으로부터. 매형이 아무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허송생활을 하고있어 걱정이 태산같다는 사연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나는 곧장 분노와 개탄으로 뛰는 가슴을 억누르며, 그 한심한 매형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거두절미하고 “인생은 50이라고 하는데, 매형은 지금 25세인만큼 절반의 인생을 소모한 셈인데, 이제까지 무엇을 했고, 남은 25년의 세월은 어떻게 보낼거요” 라고 시작해서, 그럴듯한 훈시조의 편지를 보냈다. 한참 후 누님으로부터 열 살 아래 처남으로부터 안하무인에 무엄하기 짝이 없는 편지를 받아보았다며 누님께 화풀이도 하고 “이 녀석 건방지게 저나 잘할 일이지...”하며 울화통을 터뜨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당돌한 편지사건은 지금까지 85년의 내 지나는 세월가운데 가장 잊혀지지 않는 해프닝으로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어, 잊을만하다가도 문득 문득 고개를 쳐들고, 그때 나는 10년 후에 무엇을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무례하고 당돌하게 큰소리를 쳤을까하는 자책의 마음이 앞서기도 한다. 그러나 참으로 가슴 아픈 회한(悔恨)은 이렇다할만한 삶의 의미나 가치를 찾지 못하고 나 역시 덧없는 세월을 낭비하고 말았다는 부끄러움이요. 자책과 아쉬움이 아닐까한다. 50세 그러니까 내가 소년시절 인생의 보편적 한계점이라고 생각했던 50대가 되자, 세월의 속도가 걸잡을 수 없이 빨라져 간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다. 흔히 세월의 속도는 나이와 비례해서 빨라져간다고 한다. 그러니까 시속(時速)으로 말하면 20대는 20킬로미터, 30대는 30킬로미터, 50대는 50킬로미터로 세월이 질주하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요즘은 시속 80킬로미터의 아찔아찔한 세월의 초스피드 바람에 내 인생의 종말은 언제 어떻게 다가올까하는 상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특히 최근 몇 년사이에 신문기자 생활을 한낱한시에 시작했던 다정했던 벗 유혁인(柳赫仁)과 조세형(趙世衡) 그리고 권오기(權五琦)가 잇달아 세상을 하직하고, 늘 형제같이 다정다감하게 지내온 박권상(朴權相)선배가, 얼마전 홀연히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자 참으로 가슴 아픈 외로움과 슬픔에 눈시울이 뜨거워질때도 있다. 얼마 전 갑작스럽게 기침이 나기 시작해서, 평소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인 의사를 찾아갔다. 진찰이 끝나고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 같느냐고 물었다. “글쎄요. 워낙 몸관리를 잘해서 지금 상태로는 100살은 거뜰히 넘길 수 있겠네요”하는 말에 다소 위안이 되는듯했다. 그말 끝에 쓸데없는 후렴처럼 그 의사가 한 마디하는 말이 이랬다. “건강상태는 나무랄데가 없는데, 나이로 봐서는 언제-어디서-어떻게 돌아가셔도 전혀 놀랄 사람 없을 것 같은 나이니 늘 건강조심은 하세요” 그런데 80대를 훌쩍 넘기고 보니, 이런저런 부질없는 근심걱정이 끊이지 않았는데, 얼마전부터 21세기를 점치는 미래학자들의 예언을 담은 책을 섭렵하고서, 죽고사는 문제나 세월의 속도에 관한 망상을 하지 않게 되었다. 미래학자들의 공통적인 예측은 21세기 인간의 평균연령은 120세라는게 다수설이라는걸 알았다. 19세기 인류의 평균연령은 미국처럼 위생관념이 철저하고 잘사는 나라도 고작 47세였고, 20세기의 100년 동안에는 한국도 80세 평균수명대에 도달한 만큼, 인간의 평균수명은 100년에 50세에서 100세 전후로 늘어간다는 학설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된다. 평균수명 120세라면(대체로 2030년에서 2040년으로 예상) 그 이상 130세에서 150세 장수자도 적지않다는 예단에서 나온 수치일 것이다. 이런 장수에 관한 화제의 꽃을 피우고 있는 동창회모임에서 한 친구가 “그렇게 오래 살면 어떻게 뭘 하겠냐”고 물었다. 할 말이 없어진 나는 냉큼 생각나는대로 이렇게 대답하자 좌중은 박장대소가 터졌다. “이왕에 오래 살려면 우리 동창생중 맨 마지막까지 살아서, 동창회에 남은 기금을 몽땅 독식하면 되지 않을까?!”

본회 2015 가을철 문화탐방

10월 22일 백천동계곡 탐방 · V트레인 탑승

대한언론인회는 아래와 같이 가을철 문화탐방 행사를 갖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회우는 신청 바랍니다. 신청은 10월 14일(수요일) 하루만 받습니다. (선착순 100명)

- ▶ 출발일시 : 2015년 10월 22일 오전 7시 50분 프레스센터 정문 출발
- ▶ 탐방코스 : 서울 출발-봉화 현불사-백천동계곡-철암 v트레인-분천-귀경

社大韓言論人會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④

노년 건강하려면 적게 먹어라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전보다 조금 적게 먹어라. 국제학술지 노인학지(Journal of Gerontology)는 최근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NIA) 소속 노인병학 및 임상노인학(Geriatrics and Clinical Gerontology) 책임자인 해들리(Evan Hadley) 박사 팀의 이 같은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해들리 박사 팀은 정상체중이거나 약간 과체중인 중년 200명을 무작위로 소식(calorie restriction) 그룹과 평소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조군으로 나누어 2년간 추적 관찰하였다. 연구 팀은 소식 그룹에 1년 후 체중 감소목표를 15.5%로 하고 칼로리 섭취량을 평상시의 25% 낮추면서 감소된 체중은 2년 간 지속토록 하되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포함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첫 1년 동안 평균 칼로리 섭취량을 평상시의 12%, 체중을 10% 낮추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다음 1년 연구기간 동안 지속됐다.

평균 칼로리 섭취량과 체중감소가 애초 목표치에 이르지 못했으나 지금까지 비만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체중을 낮춘 사례였다.

2년 동안 추적 관찰결과 소식그룹



이광영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은 대조군그룹에 비해 평균 혈중 총콜레스테롤이 6% 감소한 반면 좋은 콜레스테롤(HDL)은 증가현상을 보였다. 혈압은 평균 4% 낮아졌다. 또한 심장병과 관련된 C반응성 단백질(C-reactive protein)이 47% 감소했고 당뇨병 발

생 위험인자인 인슐린 내성 역시 떨어졌으며 갑상선 활동 표지자(標識子·marker)는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과 혈압은 표준치 보다 높을수록 심장병 발생 위험이 그만큼 커지고 갑상선은 활동지표가 낮으면 수명이 길어진다. 감염성 질환이나 자가 면역질환 진단과 경과 관찰에 이용하고 있는 C반응성 단백질은 최근 농도가 높을수록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해들리 박사는 하지만 소식 그룹에서 소수이긴 하나 골다공증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는가 하면 일시적인 빈혈현상이 나타난 사람도 있었다며 고령자가 소식요법을 할 때 의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다. 그는 이어 소식 그룹에서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이득이 있는지를 좀 더 알아 볼 필요가 있다면서 체중을 줄일 때 소식과 운동 중에 어느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문]

재외동포 언론인 국제심포지엄 해외 언론인 40여명 참석예정

대한언론인회는 재외동포언론인협회(회장 김훈)와 공동으로 10월 11일부터 5박 6일간 서울프레스센터와 지자체 현장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재외동포2세 병역문제,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해외진출 협력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재외동포언론인 36명, 국내언론인 30여명이 참석한다. 해외언론인들은 병역체협 및 전방현장취재, 초청강연(정당 대표 등), 지자체 현장취재 등을 통해 각 지역의 현

안사업을 청취하고, 지역 문화유적 등을 답사하며 각 지역의 문화적 우수성과 경제적 가치, 그리고 관광 상품을 해외에 전파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언론인협회는 730만 재외동포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재외동포 언론인들로 구성된 법인체로 재외동포 언론사(50개국 100개 언론사) 회원 1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국내에서 봄 가을 두 차례 대한언론인회와 공동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왔다.

크루즈로 둘러본 알래스카 비경들

윤재홍 (본회 논설위원·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초빙교수)



멀리 빙하가 보이는 곳에서 아내와 함께한 필자.



길이 19.3km, 폭 2.4km, 빙벽높이 30m의 멘덴홀 빙하의 위용.

지난 여름 방학에 10여 일간 미국 알래스카 여행을 다녀왔다. 필자는 KBS 기자시절에 해외 다큐멘터리를 취재한 경험이 많이 있다. 취재했던 나라는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유럽과 미국,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일본 등이었다. 당시에는 해외여행이 아닌 긴장과 고통 속에 취재 기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해외에 나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알래스카 여행은 교수가 방학을 맞아 부담 없는 순수한 여행을 했다.

알래스카 여행은 인천공항을 출발해 12시간의 비행으로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 도착했다. 시애틀에서 1박을 하면서 보잉 비행기 박물관과 유리 박물관 등을 관광했다. 다음날부터 시애틀 항에서 출발하는 프린세스 크루즈 크라운 호 선박에 올라 알래스카와 캐나다의 여러 주요 항구를 거치면서 관광길에 올랐다.

알래스카 원주민은 인디언, 에스키모, 알류트로 세 인종이 있다. 이 가운데 인디언은 2만 년 전 이곳에 정착했고 에스키모는 8천 년 전 시베리아에서 북극해 연안에 정착했다. 그리고 알류트로족도 함께 북극해 연안에 정착했다. 알래스카는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에 이어 러시아인들이 들어와 원주민들에게 약탈을 일삼았다. 1867년 미국 윌리엄 국무장관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한화 약 860억 원)의 헐값으로 사들였다. 처음에는 미국 국민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알래스카에 엄청난 천연자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1959년 알래스카는 미국의 한 주로 편입돼 현재 인구 67만 명이 살고 있다.

알래스카 전 해역을 항해하는 프린세스 크루즈 크라운 호는 11만 3천톤으로 승무원 1,200명, 승객 3,070명이 탑승한다. 이 선박의 길이는 290m, 폭 36m, 24노트로 항해한다. 프린세스 크루즈호는 지난 65년 운항을 시작해 올해 50주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2014년 일본에 이어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운항도 시작했다. 이 선박에는 관광객들이 항해과정 계속 즐길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

밤마다 각 종 쇼를 하는 극장과 나이트클럽, 조깅트랙과 헬스클럽, 미용실과

스파, 극장과 풀장, 카지노, 면세점, 도서관, 병원까지 있다. 이 선박 탑승객 3,000여 명은 90% 이상이 미국인이었다. 나머지는 한국과 필리핀, 일본사람 등이었다. 알래스카 항해 중 첫 방문지는 주노(JUNEAU)항. 알래스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다. 19세기 초 강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노다지시대 초창기 지어진 고색창연한 가옥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 도시는 연어, 넙치 등 생선과 제재업이 관광명소다. 이곳에는 멘덴홀(Mendenhall) 빙하가 길이 19.3km, 폭

2.4km, 빙벽높이 30m로 매우 웅장하여 관광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빙하의 전면과 멘덴홀 호수와 폭포가 잘 어울렸다. 이곳은 특히 관광객들이 흑고래 등 고래떼의 모습을 직접 보며 고래관찰에 환호성이 터지기도 했다.

두 번째 기항지는 스케그웨이(SKAGWAY)였다. 스케그웨이는 인디언족 언어에서 ‘북풍의 집’이라는 뜻이다. 이곳에서는 협곡열차인 ‘화이트 패스&유콘 루트’는 해발 873m 정상까지 16도 회전하며 ‘죽은 말의 계곡’과 ‘면

사포 폭포’ 등 자연경관을 달리면서 극치를 이룬다. 이 협곡열차의 철도는 1898년에 건설되어 운행하고 있다. 세 번째 기항지는 알래스카에서 가장 수려한 풍경을 볼 수 있는 국립공원 글레이셔베이 국립공원이다. 이곳은 1만 3천㎢ 인 야생지대로 알래스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인 얼음 광야이다. 이곳은 매년 4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 선박위에서 빙하를 관람하는 동안 천둥과 같은 폭음이 들리면서 빙하 일부분이 녹아떨어지는 모습이 신비스럽게 보였다. 이 곳 빙하 주변의 바다는 하얀 얼음덩이로 가득 차 지구 온난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곳은 200종의 어류와 22종의 조류, 갈색곰과 흑곰, 사냥물개, 독수리 등 야생동물이 살고 있다.

네 번째 기항지는 캐치칸(KETCHIKAN)항이다. 이곳은 원래 틀링깃 인디언 족이 연어를 주식으로 살아와 어업이 발달하여 세계의 연어 중심지였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독수리와 부엉이 등 동물센터와 각종 목재로 등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는 제재소 등을 보면서 이 지역의 특산물인 푸짐한 바닷게 요리를 맛있게 먹는 기쁨으로 즐거움을 만끽했다.

마지막 코스인 캐나다 빅토리아 항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인 부차드 가든이 있다. 다양한 꽃과 꽃동산, 각종 조형물과 야간의 조명과 어울리는 정원의 아름다운 모습에 관광객들은 넋을 잃을 정도였다. 부차드 가든은 원래 시멘트를 만드는 석회석을 캐내는 채석장이었으나 100년이 넘도록 3대째 꽃밭을 가꾸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어 감동을 받았다.

필자는 이번 크루즈 여행에서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3일 간 계속된 노래자랑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여 톰 존슨이 부른 ‘딜라일라’를 열창하여 환호를 받았다. 이 노래자랑에서 필자가 우승하여 상을 받은 후 주최 측에서 한국인을 위해 한국인 가수 싸이가 부른 ‘강남 스타일’을 즉흥 연주해 한국인 모두가 무대 위에서 함께 춤을 추며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한국도 선진국 대열에 앞장설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들떴던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필자]

소무의도 바다누리길 탐방

본회산악회 ‘섬속의 섬’ 풍광즐거

대한언론인회산악회(회장 이상호)는 지난 9월 16일 23명의 회우가 참여한 가운데 인천 앞바다에 자리한 무의도속의 작은 섬 소무의도를 다녀왔다.

이날 일행은 소무의도 해변을 따라 가꾸어진 바다누리길 8구간을 돌면서 소무의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했다.

소무의도는 무의도가 거느린 섬으로 배를 이용해 오갔으나 2011년 4월 28일 연륙교가 개통되면서 도보로 다리를 건너게 되자 소무의도를 찾는 탐방객이 점점 늘어나면서 인기 있는 명소로 각

광을 받게 됐다.

옛날에 어부들이 짚은 안개를 뚫고 근처를 지나다가 섬을 보라보면 마치 말을 탄 장군이 웃짓을 휘날리며 달리는 모습 같기도 하고 선녀가 춤추는 모습 같기도 한데서 무의도라는 이름이 유래된 섬이다.

호령곡산과 국사봉에 매료돼 등산객들이 즐겨찾는 무의도는 해안절벽과 기암괴석 등 자연경관과 주변전망이 뛰어나고 물고기가 많이 잡혀 낚시꾼들도 즐겨 찾는 곳이다.



소무의도 바다누리길에서.

이날 산행에는 강진형 김성묘 김연일 김영호 김조영 김홍운 나용경 맹태균 박종서 안종우 안평선 이민희 이보길

이상호 이선희 이우진 이정세 임상학 장 옥 정창기 최귀조 최병요 한양인 회우 등이 참여했다. [필자]

통일이 미래다

One Korea, New Asia

6·25참전유공자에 특강



박찬호(일본 섬연신문 논설위원)원로회우= 8월 20일 성동구보훈회관 3층 회의실에서 6·25참전유공자 90여명을 대상으로 ‘남북통일 첨병역할 담당할 해외 동포’ 주제로 특강.

제6회 백교문학상 시상



권혁승(백교문학회 회장) 원로회우= 10월 7일 오후 2시 강릉 행복한 모루(구 명주군청)에서 제6회 백교문학상 시상식을 갖는다. 올해 대상에는 수필 부문에서 ‘어머니의 행상길’로 수필가 김영순씨(57세, 강릉 관동대 강사)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에는 시 ‘눈 오는 날의 풍경화’로 이원용씨(65세·포천), ‘시래기를 삶는데’로 윤월희씨(62세·강릉), 수필 ‘팔죽’으로 이용철씨(55세·하남)가 각각 선정되었다.

광복절 70주년 경축식 사회



김상준(동아방송대 교수) 회우= 8월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8·15 중앙경축식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자랑스러운 무안인상 수상



김선옥(전 KBS 라디오 제작센터장) 회우= 8월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라남도 무안군민 정기총회에서 제2회 자랑스러운 무안인상(언론문화부문)을 받았다.

‘3인의 아나운서 이야기’ 책으로 나와 김승한(전 KBS 아나운서실장) 회우=

회우동정 가나다순



1980년대 아나운서 실장을 지낸 김 회우와 이규항, 이장우 3인의 아나운서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이 책은 이세진 이계진 두 아나운서가 8월 29일 출판한 것이다.

‘관모회’ 참석 축하



박기정(함경북도지사·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9월 11일 함경북도 전 현직 도지사 및 명예시장군수 모임인 ‘관모회’에 참석, 축하를 했다.

‘사이버전 대응 --’ 대토론회



박빈진(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회우= 9월 16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이버전 대응태세,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토론회 개최.

6·25전사 미군장교 흉상건립추진



서진섭(전 한미동맹친선협회 회장·전 자유신문 기자) 원로회우= 6·25전쟁 당시 남한강변에서 전사한 Bryant E. Moore 미 육군소장(9사단장) 등의 흉상을 남한강변 신록사 건너편에 세우기 위해 유관부서에 협조를 요청 중이다.

박대통령 訪中 관련 시론 게재



여영무(남북 전략문제연구소장·뉴스앤피플 대표)= 박근혜대통령 중국 방문에 앞서 8월 31일자 동아일보에 ‘박 대통령,

시진핑 주석에게 터놓고 말해야’ 주제로 시론 게재.

언론중재위원 위촉



이종세(전 스포츠 동아이사) 회우= 지난 8월 31일자로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가천박물관에 미술사 등 관계자료 기증



이규열(한국근대미술연구소 소장) 원로회우=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미술, 미술사, 문화재 관련 장서와 전시 카탈로그 및 관계자료 등 4천여 점을 인천 가천박물관에 기증했다. 이는 2001년에 삼성미술관 리움 자료실에 같은 성격의 장서와 자료 4만여 권을 1차로 기증, 한국미술기록보존소(아카이브) 설립의 모태가 되게 한 데 이은 두 번째 기증이다.

‘Diplomacy’ 창간 40주년 기념 행사



임덕국(월간 Diplomacy 회장) 회우= 10월 15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월간 Diplomacy 창간 4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월간 Diplomacy는 지난 40년간 약 500여명의 세계 정상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함으로써 국위선양뿐 아니라 경제 협력증진에도 크게 기여한바 있다.

‘신 한국운동 추진본부’ 대표 자문위원



천상기(경기대 초빙교수) 회우= 국민 의식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1 등 국가 통일 한국 만들

기’ 범 국민운동 구심체로 지난 9월 대구에서 출범한 ‘신 한국운동 추진본부’ 대표 자문위원에 위촉 되었다.

요셉대학 생활영어 전임강사



최선록(용인시 노인복지관 영어강사·전 서울신문 편집부국장) 회우= 지난 9월 1일부터 용인시 보라성당 요셉대학 생활영어반 전임강사로 출강 중이다.

‘항일 단파방송 연락운동’ 기념식



한영섭(한국방송인동우회 회장·사진 왼쪽) 원로위원장·조성국(전 코리아헤럴드 편집위원·사진 오른쪽) 원로회우= 10월 8일 오후 2시 ‘항일 단파방송 연락운동’ 73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단파방송 물망비가 세워져있는 KBS 본관 광장에서 기념식과 함께 조성국 원로회우가 단파방송과 관련된 강연을 한다.

단파방송 연락운동은 일제 말기인 1942~43년에 방송국 직원들이 해외에서 보내오는 단파방송을 청취, 항일운동을 펴다가 투옥되어 옥사자까지 생기는 항일의거 사건이었다.

‘신문산업 어제와 오늘’ 저술지원 받아



홍원기(전 한국일보 감사) 본회 명예회장= 신영연구기금이 선정한 2015년 하반기 저술(‘신문산업 어제와 오늘’ 출판)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신영연구기금은 지난 1978년부터 언론인들의 저술·번역출판을 지원하고 있다.

김양삼 회우 별세



김양삼회우가 지병으로 9월 1일 별세했다. 향년 73세, 분당서울대병원에서 3일 오전 7시 30분 발인했다. 고인은 1943년 9월 25일 충남 청양에서 출생하여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68년 신아일보 공채 5기로 언론계에 입문했다. 신아일보 사회부 사진부 편집부기자를 거쳐 문화부 대중문화 전문기자로 활약했고 1980년 경향신문으로 옮겨서는 문화2부장, 중부지역 본부장, 심의위원, 경영지원실 기획위원을 역임했다.

문화 예술계 활동이 두드러져 금관상 영화제 심사위원, 좋은 영화 심사위원, 엑스포영화제 출품작 선정위원, 한국문화예술진흥협회 비디오부문 본선 심의위원,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회원으로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다.

시집 ‘서울이 열리는 나무’, 다큐멘터리 ‘세계의 분쟁지대’를 남겼다. 대한언론인회는 2일 오후 김은구회장, 정운중 상임이사가 회원들을 대표해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명복을 빌었다.

황귀근 본보광고국장 별세



황귀근 대한언론인회 광고국장이 지병으로 9월 14일 별세했다. 향년 58세. 9월 16일 오전 8시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 11호실에서 발인했다.

고인은 여수고등학교와 경희대를 나와 한때 한국신용평가정보 회사에

서 정보마케팅 부장으로 근무했고 울산광역시일보 기자, 서울지국장으로 언론계와 인연을 맺었다. 고인은 2008년 초부터 프리랜서로 대한언론인회가 발행하는 ‘대한언론’의 광고업무를 전담해왔다.

회우 광고수주 독려방안 건의

본회 기획조정위원회

대한언론인회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 오건환)는 9월 9일 11시 본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대한언론인회 운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금 이자 감소로 인한 비상대책으로 광고수입증대가 초미의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회원들의 자발적 광고 수주를 독려하는

입회비·연회비 내주신 분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괄호 안 숫자는 납입연도, 2015년 8월 29일부터 9월 24일까지)

김양삼(15) 류철희(14,15) 손세일(15) 신우식(15) 어경택(15) 이덕주(14,15) 이병삼(15) 이선희(15) 이종전(14, 15) 이창호(15) 이태영(15) 배학철(13,14,15)

◀ 주소 변경 ▶

이종석 회우 = 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40, 마포자이 2차 103동 201호 (우 04111)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 줄 것 등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김銀九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경기도주최 · 2015 게임창조오디션 우승자 · 템코퍼레이션 이종훈대표]



누가 만들었을까?

남들과 다른 내일

단순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일을 디자인 하고
비즈니스 생태계를 바꿔 더 많은 내일 내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함께 만드는 미래
NEXT 경기

경기도 일자리센터 031-8008-8663

광복 70주년. 전자랜드가 함께합니다

전자랜드 **price KING**
프라이스킹

전자랜드는 100% 대한민국 국내기업입니다

1 독도캠페인 (2014. 04~)

- 독도중앙연맹 MOU 체결 (2014년 4월 10일)
- 전국지점 독도교육 (2014년 5월 8일)
- 천만독도명예시민 캠페인 진행 (2014년 5월 14일)
- 천만독도명예시민 홍보대사 유도훈 감독 위촉 (2014년 6월 10일)
- 독도의 날 독도경비대 전자제품 기증 (2014년 10월)

2 위안부돕기 캠페인

- 위안부 할머니 쉼터 나눔의 집
임직원 봉사활동 (2014년 7월)
- 나눔의 집 전자제품 기증 (2014년 8월)

3 역사여행 이벤트

- 광복 70주년 기념
항일역사여행 이벤트 (2015년 8월)